금주의 법구-〈법구경〉
스스로 자제해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3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3호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집행부는 '염화미소법', 지역佛心은 '직선제'

경북 · 충청 지역 대중공사서 '직선제' 선호 뚜렷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염화미소법'과 '직선제'다. 집행부는 '염화미소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직선제'를 선호해 그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첫 대중공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염화미소법을 추천했지만 이어진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4월 9일 김천 직지사와 12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대전충청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각각 100여명, 80여명의 대중이 참가했다. 이들 중 64.6%와 45.3%가 각각 직선제 선호 의사를 밝혔다. 추첨제인 염화미소법은 각각 5.1%, 34.4%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현행제도 '대표성 미흡' 꼽혀
경북 참가자 65% 직선제 요구
충청서는 직선제 문제 쟁점화

대중은 '대중공의 구현' 원한다

두 지역 대중공사에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첫 중앙대중공사에서 선보였던 전자투표가 도입됐다. 전자투표는 개인리모컨을 사용, 각 질문에 비공개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전자투표에서 먼저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북 39.2%, 충청 46.9%의 참가자들이 '금권 혼탁선거로 인한 승가화합 저해'를 꼽았다. 하지만 나머지 과반이 넘는 대중들은 '계파의 정치야합' '사부대중 참여미흡' '참종권 제한' 등 현행제도가 대중공의를 미반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인식은 '대중공의 구현'이란 목소리로 이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대중공사의 참석자 70.8%와 49.2%가 차기제도 과제로 '대중공의 구현'을 꼽았다.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참석자 64.6%와 45.3%가 대중공의 구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 받는 '직선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선호에 문제점 본격 논의

이 같은 선호 분위기에 대전충청 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가 가진 문제점을 토론 주제로 다뤄 주목을 끌었다. 그 결과 토론 전 51.3%의 직선제 선호도가 45.3%로 감소했으며, 염화미소법 선호도가 16.7%에서 34.4%로 크게 높아졌다. 대구경북 대중공사에서의 염화미소법 지지도 5.1%와 크게 차이나는 이유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민주주의나 대의성 강화가 불교가 가진 문제점의 해답이 아니다. 직선제 시행 전 종도가 정치화된다. 선거운동으로 종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직선제 선호가 왜 높은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직선제 선호가 왜 높은지 그 안에 해답이 있다.종단 구성원 의사가 반영된 대표자 선출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선제 장점 살리는 제도 필요

그렇다면 직선제는 종단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대중공사에서는 두 개의 흐름이 감지됐다. 염화미소법은 종단 고위직 스님들이 주로 찬성했고, 직선제는 비구니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찬성했다.

조계종의 직선제 투표권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총 10,883명이다. 이들 중 비구니 스님이 5,281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10년 이상 승랍자인 7,988명을 대상으로 하면 3,901명으로 역시 절반 가량이며, 20년 이상 승랍자 5,585명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면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보다 더 많다. 현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비구니 스님들의 직선제 요구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자승 스님은 3월 중앙 대중공사서 "종단 균열과 새 분규의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직선제 도입의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비구니 스님은 "후보 난입을 막고 추천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섞은 불교만의 제도라면 문제가 없다"며 "이미 비구니계에서 10대 ·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통해 직선제의 가능성을 시험했다. 장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종단의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대중공사추진위는 4월 한달 동안 호남, 강원, 영남, 제주 등을 돌며 공의를 모으고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두 번째 중앙 대중공사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佛名 받고 착한 청소년 되겠습니다 조계사 불교학교에 다니는 유아부터 중 · 고등학생까지의 불자들이 4월 10일 열린 '불교학교 어린이 ·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수계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청소년 법회 지웅 스님, 불교학교 전담법사 성민 스님, 불교학교 학생들 1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참여 학생들이 연비 받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청춘' 새 옷 입는 연등회…"꼭 올 거지?"

연등회, 5월 6~8일 종로 일원서 개최

청춘 마당 신설, 젊은이와 소통
북한 문헌 근거한 새 전통등도

올해 연등회가 '청춘'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팍팍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2016년 연등회는 5월 6~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장엄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은 4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봉행된다. 봉축기간동안 광화문광장을 밝힐 탑은 지난 2012년 시청광장에서 선보인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제작한 높이 20m의 등이다. 올해에는 탑등 사방에 비천상을 세워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기존 연등회와 다른 새로움은 5월 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이 대표적이다. 신설한 청춘마당을 비롯해 △먹거리마당 △전통마당 △나눔마당 △국제마당 △NGO마당 등 총 6개 주제의 부스가 연등회 참가자들을 반긴다.

청춘마당은 점차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계의 고민을 담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대표적으로는 '어라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 등의 불교 애니메이터그룹. 감성적인 불교 카툰으로 청년들에게 불교를 부드럽게 전할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음수행법과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의 부스도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연등행렬이 하루 만에 끝나 아쉽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저녁 7시부터 연희단 중심으로 인사동 및 종로 일대에서 등물결을 다시 선보인다.

한편 앞서 7일 진행되는 연등회 메인 행사도 청춘의 의미를 담았다. 먼저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에는 40여개 단체 1000여명의 연희단과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율동단이 참여한다. 아울러 청년율동곡으로 198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를 랩으로 작곡한 '당신의 생일입니다'가 울려 퍼진다.

연등회의 '꽃'인 연등행렬은 오후 7시부터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올해 선두행렬에는 한글로 표현한 오방번과 인로왕번, 북한문헌을 토대로 복원한 북한전통등이 대거 등장한다.

연등행렬이 끝난 뒤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에서는 회향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5월 6일부터 조계사 옆 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에서 전통등 전시회가 열리며, 글로벌 서포터즈는 5월 4일 깜짝 이벤트로 플래시몹과 탑돌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대안 스님은 "올해 연등회는 '불교가 어떻게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 마련했다"며 "불교의 참뜻을 알리고, 어렵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전국 봉축일정 5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인문학 스타강사 강남 불교에 총출동

월호 · 마가 스님 등 17명
참불선원, 총 24강 마련
명상 · 불교 · 심리학 등 다채
5월 2일부터 3개월간

불교계의 내로라하는 인문학 스타들이 강남에 총출동한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이 5월 2일부터 3개월간 개설하는 '불교인문학 강좌'가 그것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최근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마음안정 스트레스 완화의 명상 분야를 비롯해 동서양 철학, 심리학과 불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주제로 다룬다. 상반기(5월)와 하반기(9월) 각 3개월 과정으로 상 · 하반기에 걸쳐 총 24강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유명인들이 출강한다. 행복 명상 멘토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힐링멘토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 스님,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유식치유 상담멘토 서광 스님(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비로선원 선원장 광명 스님 등 9명이 참여한다.

강사로 참여하는 재가자들의 이력 또한 화려하다. KBS와 SBS 등 공중파 출연을 통해 인문학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는 철학자 강신주씨를 비롯해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중관학의 대가인 김성철 동국대 교수, 이규미 한국심리학회장, 선상진 불교방송 사장, 〈훈민정음의 길〉 저자인 사학자 박해진 씨 등 8명이다.

이번 강좌를 기획한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은 "새롭게 기획한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 불교학을 탈피하고 문화적 삶의 지적 깊이를 더해줄 심오한 불교인문학 저변화를 위해 인문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강사진을 초청해 불교의 지성문화 생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의 대부분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지상 중계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 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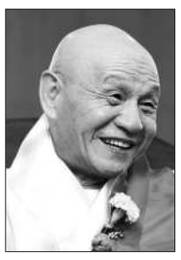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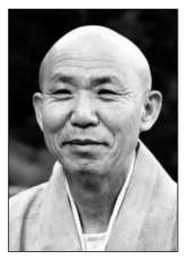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무산·원각 스님, 대종사 법계 받는다

조계종 원로회의 제51차 회의서 의결


무산 스님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무산 스님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원로회의의 의결에 따라 무산 스님과 원각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과 함께 오는 4월 20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내년 3월 종정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오는 12월 차기 종정 선출에 관한 건을 비롯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 9명의 후임에 대한 건 등을 논의했다. 또한 종무보고로는 한전부지 환수추진위원회 활동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될 원로의원 9명의 후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종정 스님의 후임 선출도 이뤄져야 한다.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법구현 · 문중화합을 최우선으로"

범어사 주지 경산 스님 진산식 · 부산불교연합회장 취임식



금정총림 범어사는 주지 경선 스님의 진산식 및 제12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4월 11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1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서 주지 경선 스님의 진산식 및 제12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김세연 국회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금강경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을 예로 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사를 하였으나 얻은 바도 없고 설할 바도 없는 것처럼 항상 여여하게 정진 수행 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취임사에서 "금정총림의 어른이신 방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문중 화합을 가장 막중한 책무로 삼으려 한다"며 "정화종찰로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선 범어사의 뜻을 이어 민족과 불교가 아픔을 겪을 때 마다 기꺼이 호법신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산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부산불교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선명해질 것"이라면서 "꾸준한 정진으로 부산불교가 시대와 우리 사회의 울창한 숲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 스님은 1963년 파계사로 입산한 이후 행자시절 10여 년 간 성철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했다. 또한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 상좌인 법윤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해인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스님은 1971년 졸업하여 1972년부터는 범어사 금어선원 3년, 오대산 청량선원 3년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하성미 기자

佛心으로 民心 어루만지는 정치 기대

20대 총선, 불자국회의원 55명 당선… 19대보다 큰폭 증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4월 13일 해운정사 인근 투표소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BBS불교방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치러진 가운데 불자로 파악된 후보 55명이 당선 된 것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 46명과 19대 총선 4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5명 등 총 30명의 불자의원이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5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강길부(울산 울주)를 비롯해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이철규(동해삼척) 등 무소속 5명도 당선보를 알렸다.

특히 개신교측서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 소신을 가진 후보를 뽑겠다는 등의 몰아주기식 상황에도 승리를 거둔 불자 후보들의 선전에 불교계는 환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정치계의 불교통'인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탈락을 딛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어려서부터 대구 동림사에서 불심을 키운 주 의원은 불교종립 능인고를 나와 2004년 정계에 입문했다. 특히 전통사찰 규제 개선 등 입법활동에 앞섰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을 맡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불자모임을 이끄는 강창일 의원도 4선에 성공했다. 19대 정각회 회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특히 15~16대 국회에서 활동이 정지된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를 복원했고, 2008년 10 · 27법난 진상규명과 피해자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기한연장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포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홍철호 의원은 중앙승가대와 인연이 깊다. 먼저 김포지역 불자상공인모임 보현선행회를 앞장서 만든 장본인으로 보현선행회는 김포지역 다문화가정 후원, 청소년 선도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김포연등문화축제, 종교화합한마당을 열고 있으며, 종교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는 등 불자로서 종교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부산진을에서 당선된 이헌승 의원은 천태종 삼광사 신도로 제18대 신도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으로 부산불교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새누리 30 · 더민주 15 · 국민 5명
주호영 의원 등 무소속 5명 선전
불교세 강한 영남서 전체40% 당선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에 불자들이 많이 포진됐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서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유민봉 의원이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 의원은 영주 양백정사서 수행과 신행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봉철 스님의 유발상좌로 특히 간화선에 정통해있다.

비례대표 13번으로 당선된 윤종필 의원은 1973년 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한 이래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자생도 모임인 보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구에 간호사관학교가 있을 당시 파계사서 신행생활을 펼쳤다. 지금도 예불과 108배, 경전 읽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박선숙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홍철호(경기 김포을), 이종배(충북 충주),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정종섭(대구 동갑),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석기(경북 경주),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갑윤(울산 중구), 김무성(부산 중 영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김정훈(부산 남갑), 유기준(부산 서동),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이진복(부산 동래),김재경(경남 진주을), 윤영석(경남 양산갑),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임이자(비례대표), 김성태(비례대표), 유민봉(비례대표) 윤종필(비례대표), 김순례 (비례대표) (30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이훈(서울 금천구), 추미애(서울 광진을), 김상희(부천 소사구),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강창일(제주 제주갑), 오영훈(제주 제주을) (15명)
국민의당	김성식(서울 관악구갑),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김경진(광주 북구갑), 박준영(전남 영암군), 박선숙(비례대표) (5명)
무소속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강길부(울산 울주), 이해찬(세종시), 이철규(동해삼척) (5명)

한편, 이번 불자의원 당선자의 분포는 그동안 종교지형도에서 불교세가 강한 영호남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수장 실형 판결… 종단 큰 충격 휩싸여

법원 "종교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일침

총무원사 점거 과정서 폭력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 등 4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태고종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4월 12일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D스님과 비대위 호종국장인 J스님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나머지 7명 스님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강성훈 판사는 "피고인 스님 중 한 명이 성명서에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수년간 보여 온 갈등과 재판에 임한 자세 등을 볼 때 과연 넓은 바다를 지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엄중 문책했다. 이어 "작은 호수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며,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웠어야 한다. 종법이 속세 법보다 우선한다지만 그 기본정신은 말과 행동에 응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강 판사는 "만약 이번 재판을 어린 학생들이 보고 피고인들이 왜 재판을 받는지 묻는다면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며 "종교지도자이기 이전에 다른 어른들 행태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은 각각 4월초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으며, 차후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종단사태 수습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챙긴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내)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문 의 : 042)825-1724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학림사 오등선원

절터 금당지로 교각이… 寺址 보존 '빨간불'

울산 가천리 사지 도로공사 추진 '논란'

밀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국도 제14호선 도로 공사 중 발견된 가천리 절터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지표 조사 과정에서 유물과 유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가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강행할 입장이다. 사실상 폐사지 보존 ·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발굴조사지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126의 2 일원으로 신불산 터널 입구다.

가천리 사지는 2013년 7월 국방문화재연구소가 구간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울산문화재연구소가 해당 구간에 대해 시 ·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을 통해 금당지와 회랑 등 10동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수막새 · 온돌 · 우물터 · 손가락 크기의 금동불상 등이 발견됐다.

건물지의 형식을 볼 때 가천리 사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터로 평가됐다. 발견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압유사'라고 추정하면서 "통도사와 직선거리로 4km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찰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원형 보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건물의 석축까지 나왔다. 석축이 발견됐다는 것은 부근에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매장됐음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단초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4월 8일 현장을 방문해 현장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미 조건부 승인이 이뤄져서 도로 교각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교각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유구의 활용 방안



울산 가천리 사지 전경. 한국도로공사의 밀양~울산 고속국도 제14호선 도로 공사의 지표조사 중 발견됐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사찰의 중심인 금당지에 교각 다리가 놓이며, 위로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밀양~울산 고속국도 공사 중
6공구 구간 유구 잇달아 발견
문화재위 '先공사 後보존' 가결

공사 시 금당지 위로 교각 설치
사지 훼손 불 보듯… 대책 시급
조계종 "공사 중단 · 정밀조사해야"

실제,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는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가천리 사지의 원형 보존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부장 정안 스님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교각 자리에 어떤 문화유적이 있는지도 확인치 않고 교각 설치를 먼저 승인하고, 주변 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훼손을 초래한 결정은 심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천리 절터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 유적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지인만큼 반드시 원형보존돼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공사 중단 △정밀발굴조사 진행 △진정성이 담긴 사지 보존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안 스님은 "개발을 위한 졸속 발굴은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사지의 명확한 성격과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한 학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한 종교"

인도 로카미트라 법사, '신대승네트워크' 좌담회서



인도 인권운동가 로카미트라 법사〈사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불교'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4월 11일 서울 견지동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신대승네트워크 초청으로 열린 좌담회에서 "대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제도 혹은 사회 체제'라고만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사람간의 소통 · 박애 · 자비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그 중에서도 불교가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로카미트라 법사는 부처님 생존 당시부터 불교는 사회참여적인 성향을 보였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최근 몇 년간 '참여불교'란 말이 등장했지만 사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거 기간을 제외, 항상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을 전하고 다니셨다"며 "개인적 깨달음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대승 불교'의 본뜻이 '참여불교'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자비 없는 지혜도 없으며, 지혜 없는 자비도 없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카미트라 법사는 종교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선 △이성과 과학에 부합할 것 △자유와 평등, 자비를 기조로 삼을 것 △가난을 외면해선 안 될 것 등 3가지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로카미트라 법사는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교의 재부흥 추세가 과거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란 점에 주목하고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천민들은 불교의 평등 정신을 토대로 비폭력 ·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하층계급 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단 것의 반증"이라며 "불교가 성장할수록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카미트라 법사는 영국 태생으로, 26살 때 영국 출신 승려이자 불교 지도자인 상카락시타 법사를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박아름 기자**

"미인증 LED연등, 사찰 화재 주원인"

문체부, 인증제품 사용 권유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계종에 전통사찰 화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미인증 LED연등에 대한 단속과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파주의 한 전통사찰에서 미인증 연등용 LED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한데 대한 안전조치다.

문체부가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서 연등이 늘어남에 따라 필히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파주 전통사찰 대웅전을 태운 화재가 연등용 LED 전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증 제품은 과열시 매우 위험하다.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각 전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규격서 안내와 방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4월 1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종교시설 발생 화재는 677건으로 이중 전통사찰 화재가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인증 LED연등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노덕현 기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조속히 인양해야"

조계종 사회노동위, 팽목항서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

유가족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피맺힌 절규. 애꿎은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다.

300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차가운 바다에 휩쓸려 간 지 벌써 2년. 두 번째 봄이 왔건만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권재근, 권혁규, 고창석,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이영숙, 조은화, 허다윤. 눈물에 사무치도록 부르짖은 내 딸의, 내 아버지의 이름. 싸늘한 주검조차 안아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시간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짙게 내려앉는 어스름이 애석하기만 하다.

세월호 침몰 2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 희생자 추모재 및 인양 촉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 스님 10여 명을 비롯해 미수습자 조은화 씨 가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추모 행사는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의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염불 의식에 이어 헌화, 미수습자 조은화 씨 가족과 면담, 인양 촉구 풍등 날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염불의식을 마친 스님들은 아직도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하는 현실에 크게 안타까워했다. 사회노동위원 고금 스님은 14일 오전 정부가 '5월 세월호 인양에 착수해 7월 경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제라도 인양 계획이 발표돼 다행이지만 본격 인양에 착수할 때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세월호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인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미수습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 씨와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씨는 "은화가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렀을 이름이 '엄마'였을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100프로 은화가 배 안에 있을거라 믿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하루빨리 9명 모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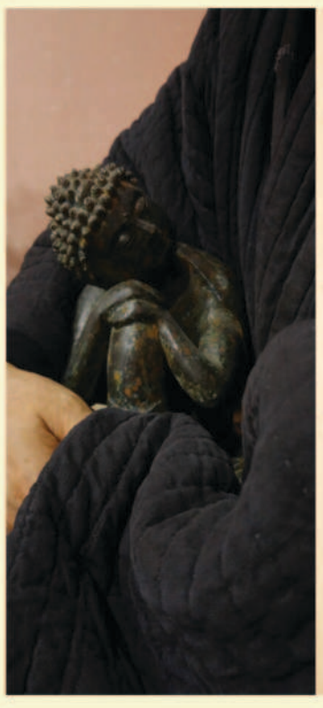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4일 조계사서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고, 16일에는 전국 사찰서 일제히 추모 타종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故이지혜 · 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1000배기도 및 오체투지를 실시하는 등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 및 세월호 인양 촉구에 앞장서 왔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점차 잊어가는 현실에서 기억과 관심을 당부하고자 팽목항에 내려왔다"며 "인양이 개시된 후에도 사회노동위는 팽목항을 다시 찾아 추모기도회를 여는 등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노동위는 4월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세월호 생존 학생과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 팽목항=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 희생자 추모재 및 인양 촉구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염불의식을 하고 있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일 주 문



불광사 유아수계법회

지홍 서울 불광사 회주 스님은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경내 법당에서 '제2회 불광사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

정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5월 8일 오후 5시 서울 우정국로 특설무대서 '제16회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4월 30일까지 '제4회 가족과 함께하는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 작품을 접수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4일.



봉축기념 '이 뭣꼬' 초청공연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5월 3일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봉축기념 특별초청공연 '이 뭣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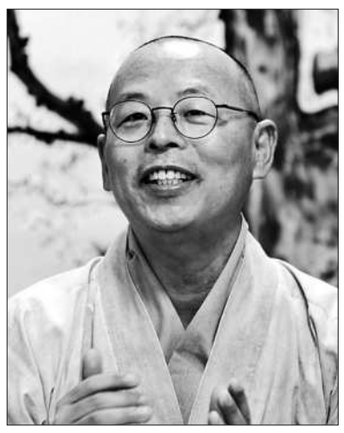
교사불자회 임원회의

배한욱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4월 23~24일 양평 용문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상반기 임원회의'를 실시한다.

"현대 한국불교 실천담론 찾겠다"

Interview

한국불교 향상포럼 창립 공동대표 법인 스님



불교계 대표 지성들 협업 진행

現 불교 상황 대안 마련 고민

15일 창립 첫 토크 포럼 개최

"현대언어로 불교담론 다룰 것"

"불교는 철학적 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현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돼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 될지를 연구·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창립하는 '한국불교 향상포럼-성찰과 대안(이하 향상포럼)'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월 15일 창립된 향상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법인 스님(일지암 주지·사진)은 기자회견에서 향상포럼의 창립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향상포럼은 지성의 공동협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월 15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첫모임을 한 이래 2개월의 준비를 거치면서 외연을 만들어갔다.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도 교수, 출판인, 활동가 등 다양하다. 공동대표에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참여하고 운영위원으로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 유지호 ㈜불광 대표이사, 박재현 신대승 네트워크 소장 등이 함께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성 간 협업'과 '현대 불교의 실천론'을 모색하는 데 있다. 포럼 진행방식도 기존 학술세미나·회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한 운영원칙도 세웠다.

5~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운영 원칙으로는 △'삶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다룰 것 △'문제중심형'으로 발표 △'자기의 생각'을 '의미를 명확히 한 현재어'에 담아낼 것 △발표방식은 자유롭게 선택 등이다.

"모든 발표는 '풀어야 할 지금 여기의 문제 상황'을 사례적으로 설정한 후, 발표자가 소화하고 있는 교학적 이해를 비롯한 모든 전문성을 적용시켜 문제와 관련된 시선을 개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포럼이 이뤄질 것입니다. 일반인이나 불교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일 열린 창립행사는 '박물관불교학, 실용불학'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참여 패널들은 관련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금기 없는 개방성, 성찰적 지성의 깊이와 신중함으로, 한국불교의 향상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포럼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

9일 삼성각서… 500여 명 참석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주지 법성)는 4월 9일 경내 삼성각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제를 봉행했다.

주지 법성 스님은 "갓바위 부처님 자비광명이 모든 가정에 향상 충만하며 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 되길 서원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선재종 창종법회

총무원장에 지운 스님 취임



대한불교선재종은 3월 30일 광주 미륵사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하고, 총무원장으로 지운 스님(영천 용화사 주지)이 취임했다. 창종법회는 지운 스님, 두백 스님(전 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창종 선포문 낭독, 행장소개, 취임사, 임명장 수여, 축사, 발원문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문수학 스님들의 따뜻한 나눔

동국대 총동림회 12일 탑골공원 배식봉사



종단과 나이를 불문한 선후배 스님들이 모여 탑골공원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스님들의 모임인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4월 12일 탑골공원 옆 원각사에서 무료 점심 배식을 진행했다.

이날 배식봉사에는 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고문 학명 스님, 명예회장 무문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등 10명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음식을 건네고,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눴다.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하자는 회원 스님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례를 겸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회장 학명 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이 바로 봉사"라며 "주변의 많은 스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1세 선도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는 4월 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선도장학회(이사장 선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올해 101세를 맞은 선도 스님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3명의 장학생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도 스님은 前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로,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해 200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선도장학회를 설립한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선도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나라 잃은 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국가의 소중함이자 애국"이라며 "학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공부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선도 스님께서 이렇듯 정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동적이며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충실히 하도록 기초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공덕원, 지장기도처로 회향할 터"

공덕원 주지 능후 스님



"앞으로 지장기도 신앙처로 많은 불자들의 의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불교 근본도량으로 22년간 부산 용호동을 지켰던 공덕원(주지 능후·사진)이 부산 대연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덕원은 대지면적 120평, 연건평 140평으로 총 3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능후 스님은 앞으로 공덕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회향하고 열린 공간, 친근한 불교를 지향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 포교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스님은 "요즘 어린이 법회를 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아울러 청년 포교를 위해 남구청 법우회와 합동 법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능후 스님은 은사인 석용산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능후 스님은 "부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고 수행해왔다. 신도들이 흩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은 공덕원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은사의 스캔들과 입적 후 수습해야 할 문제로 정신 차릴 시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편견이 가장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능후 스님은 "누구나 맘 편히 찾아와 쉬다 갈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축불사 낙성법회는 4월 25일 오전 11시 법당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태국 쵸티코 스님 초청법회

대구 성불암, 4월 7일 대웅전서



대구 달성군 성불암(주지 옥당)은 4월 7일 대웅전에서 태국 마하출하롱컨 대학교 부총장이자 왓 아룬 새벽사원 주지 샤와이 쵸티코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태국 샤와이 쵸티코 스님은 "다 같은 부처님 제자로 국적과 수행하는 교육의 방법은 달라도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고, 정법포교를 다른 이웃과 함께하여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불보살도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고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부처님 나투신 환희 전국 각지서 기린다

2016 전국봉축행사 일정


지난해 열린 연등회에서 장엄등을 앞세운 한글반야심경 연등행렬이 종로 일대를 환히 밝힌 모습. 사진제공=연등회보존위원회

불기 2560년을 맞아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122호 연등회가 5월 6~8일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전국 모든 이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연등회를 즐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쉬워 하지는 말자. 서울 외에도 전국 각지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기릴 예정이다.

먼저 불도(佛都) **부산**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송상현광장서 부산연등문화제를 개최한다. 5월 7일에는 구덕운동장~동아대 부민캠퍼스~대청로로 이어지는 봉축연합대회 연등행렬이 부산의 밤을 밝힌다. 또 기장군에서는 4월 24일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문화화체험 · 음악축제 · 제등행렬 등이 펼쳐진다.

대구는 지난 4월 5일 동화사 대웅전서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식을 실시하며 봉축분위기를 돋우기 시작했다. 9일에는 국채보상공원서 달구벌 점등식을 봉행했으며, 30일 두류야구장~반월당네거리에서 본행사인 '달구벌연등회 및 연등행렬' 이 진행된다. 또 5월 4~8일 동안 신천일대서 '형형색색달구벌관등놀이' 도 이어진다.

인천은 4월 30일 문화예술회관 일대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봉축탑 점등을 비롯해 전통등 전시 · 전통문화체험 · 영산재 및 수륙재 공연 · 연꽃합창제 · 봉축법요식 · 힐링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5월 7일 강화문화회관에서는 별도의 봉축행사인 강화연등축제를 실시한다.

울산은 4월 30일 태화강둔치에서 '불교한마당잔치' 를 연다. 빛사랑예술제와 발우공양, 소원등 띄우기, 장엄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또 5월 1일에 열리는 태화강연등축제에는 부처님 이운식, 무차만발공양, 축하공연, 제등행진 등이 진행된다.

광주는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방봉축행사 일정표 (조계종 각 교구본사 일정 제외)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광역시	부산	부산연등문화제	4월 30일~5월 15일 5월 1~15일	송상현광장 광복로
		부산연등회	5월 7일	구덕운동장~대청로
	부산(기장)	탑 점등식	4월 24일	기장중학교 실내체육관
		문화체험	5월 1일	
		음악축제		
		제등행렬		
	대구	동자승 단기출가	4월 5일	동화사 대웅전
		달구벌 점등식	4월 9일	국채보상 공원
		달구벌연등회 · 연등행렬	4월 30일	두류야구장~반월당네거리
		형형색색달구벌관등놀이	5월 4~8일	신천일대
	인천	봉축탑 점등	4월 30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전통등전시		문화예술회관 공연무대
		전통문화체험		
		영산재, 수륙재 공연		
		연꽃합창제		
		봉축법요식		
		힐링음악회		
	인천(강화)	강화연등축제	5월 7일	강화문화회관
		강화 불자 노인잔치	5월 13일	강화문예회관
	광주	봉축 점등식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울산	불교한마당잔치	4월 30일	태화강둔치
		태화강연등축제	5월 1일	
강원	강릉	연등행렬	5월 1일	남대천 고수부지
	동해	봉축 법요식	5월 7일	중앙초등학교
		제등행렬		천곡동 시가지
	원주	봉축등달기	4월 13~15일	원주시내 일원
		점등식	4월 16일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앞
		봉축합창제	4월 19일	치악예술관
		봉축문화예술공연	4월 28일	따뚜공연장
		봉축법요식		
		봉축제등행렬		따뚜경기장~원일로 등
		기타 봉축체험행사		따뚜경기장
	홍천	11사단 군장병 다과	4월 8일	11사단
경기	고양	제14회 고양연등문화제	5월 4일	화경중앙공원
	군포	탑 점등식	4월 10일	삼본역 앞 광장
		법요식 및 제등행렬		
		문화축제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경기	김포	탑 점등식	4월 12일	사우문화체육광장
	부천	봉축법요식 청소년 문화축제	5월 14일	육화전 앞 무대
	성남	봉축법회 및 점등식	4월 7일	성남시청
	수원	봉축행사 점등식	4월 19일	화성행궁 광장
		연등축제	4월 30일	
	안산	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	4월 30일	문화광장
	안성	봉축점등식	4월 15일	안성시내 혜홀광장
		봉축연등축제	5월 7일	
	양평	점등식	4월 30일	용문사
		법요식 및 공연	5월 7일	양평군 실내 체육관
		제등행렬		양평읍
	포천	부처님오신날봉축행사	5월 14일	왕산사 대웅전 앞
	하남	하남시민봉축축제	5월 8일	하남시청광장
경남	거제	봉축탑 점등식	4월 20일	신촌로터리
		연꽃음악회	4월 29일	거제문화예술회관
		제등행렬	5월 14일	거제실내체육관
	거창	점등식	4월 24일	읍내 로터리
		법요식	5월 7일	
		제등행렬		
		공연		
	고성	탑 점등식	5월 3일	로터리
	김해	4.8봉축연등회	5월 17일	대성동 고분군
	진주	봉축 점등식	4월 28일	진주역광장
		봉축 문화공연	5월 10일	진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봉축 연등행렬		진주시내거리
	창원	상생과 지역 경제발전 기원법회	4월 23일	마산 정법사 만불전
		창원시 다문화 한마당축제	5월 1일	진해중원 로타리 일원
		창원시 연등회 연합봉축법요식	5월 7일	창원용지 문화공원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		
경북	김천	봉축탑 점등식	4월 9일	김천역 광장
	구미	봉축탑 점등식	4월 16일	구미 원평공원
		봉축법요식	5월 7일	공영 주차장
		연등행진		
	성주	봉축탑 점등식	4월 30일	삼산1길(댕끝입구)
	안동	봉축탑 점등식	4월 24일	응부공원
		봉축 법요식 연등 행사	5월 14일	
	예천	연등축제(법요식)	5월 14일	개심사지5층석탑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경북	울진	봉축 법요식	5월 14일	대웅전
	청도	공연마당 (영산재및육법공양/법요식 노래자랑, 어울림 대등한마당)	4월 16일	청도천 파랑새다리 일원
		장엄등 특별전시	4월 16~17일	
	포항	법요식	5월 7일	시청앞
		제등행렬		우체국
전남	구례	제32회 산사음악회	5월 14일	불락사 법고전, 광장
	여수	봉축점등식	4월 28일	시청 로터리
		축제 겸 행렬	5월 6일	여수시내
		수륙대재	5월 8일	여수시내 무대
전북	군산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5월 11일	군산 수송체육공원
	김제	거리연등 설치	4월 10일~5월 14일	경찰서사거리~시청, 중앙초~비사벌 사거리
		제등행렬	5월 9일	김제시청 쌈지공원
	익산	봉축행사	5월 7일	중앙체육공원
		연등축제(제등행렬)		부송동 일원
충남	계룡	점등식	5월 8일	계룡시청 앞
	공주	시가지 연등행렬	5월 8일	공주시 일원 금강둔치공원
		법요식		
		축하공연		
	당진	당진시민행복기원전통연등회	5월 1일	당진 문예의전당
	부여	제등행렬	4월 30일	정림사지 오층석탑
	세종	점등식	5월 7일	영평사
	아산	연등행렬	5월 8일	온양온천역 광장
	예산	예산군민 안전 기원법회 및 점등식	4월 22일	예산경찰서 대회의실
		예산군발전기원및군민과 함께하는연등회	4월 27일	예산터미널 광장
	태안	탑 점등식	5월 2일	태안 로터리
	천안	문화마당	5월 1일	천안 고속터미널 앞
		문화축제, 법요식,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5월 14일	동남구 구청~천안고속터미널
제주	서귀포	점등식	4월 16일	일호광장
		연등행렬	5월 7일	서귀포고등학교~시내
	제주	점등식	4월 9일	해태동산
		제등행렬	5월 7일	제주종합운동장 대광장
		불교 합창단연합합창제	5월 17일	제주 아트센터

주역과 불교의 융합과 회통! |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주역선해 周易禪解

우익지욱 저 | 길봉준 역주 | 신국판 양장
1,248쪽 | 값 85,000원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유일무이한 책!

명대明代 4대 고승의 한 사람이자 중국불교의 마지막 완성자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가 천태와 유식, 화엄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응용하여 『주역』의 심오한 이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주역 및 선해 원문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대지도론 大智度論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세트가 27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장애 구분 없이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36회 '장애인의 날' 맞이 수도권 내 복지관 행사 '다채'


4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 경기 지역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날 맞이 템플스테이' 모습.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 수도권 내 불교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락 축제, 자전거 행진 등 화합과 공존의 장이 다수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4월 23일 오후 3시 군포 철쭉동산 야외무대에서 '제5회 전국 장애인 밴드 2016 사람사랑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축제에는 장애인 밴드 5팀(농벤져스 · 뮤즈 · 락드림 · 소리는 사랑을 싣고 · 슈가슈가)이 참여하며, 게스트는 유명 락 그룹 크라잉넛, 레이지본 등 6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측은 "전국 장애인들을 위한 국내유일의 락 축제"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31)396-3108

양평군장애인복지관(관장 박규창)은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의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는 관내에서 장애인주사구역 준수 캠페인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장애인의 날 당일인 20일에는 복지관 이용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및 꽃 화분 등을 제공한다.

특히 21일에는 양평레일바이크 장에서 지역 내 중 · 고등학생 100여 명(장애인 50명 · 비장애인50명)이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는 '제2회 함께 굴리는 세상'을 개최한다. 또한 22일에는 장애인 40여 명이 함께 청와대 및 경복궁 등 서울 시내를 관람하는 문화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031)773-9080

여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은희)은 4월 23일 장애인의 날 기념 및 개관 6주년을 자축하며 장애인과 가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한다. 행사는 오전 9시 50분 복지관에서 시작해 강천보, 강천섬까지 총 24km를 왕복하는 여정이다.

자전거는 무료로 대여하며,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2인용 자전거도 마련된다. 또한 전동휠체어 이용자도 참여 가능하다. 이밖에도 관내 청춘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희 관장은 "월 1회 주말 자전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관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할 수 있다. (031)883-2100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용권)은 4월 21일 오전 10시 1층 소강당에서 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명지춘혜병원과 함께하는 이번 검진은 재활의학 · 가정의학 총 2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접수는 3층 가족지원상담팀에 전화(070-4757-7148) 혹은 방문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4월 2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장애인의 날 맞이 '함께 걷는 성북, 하나되는 우리' 행사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식전공연 △기념식 △표창장 수여 △성북천 걷기 △미니게임 △체험활동 등이 진행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점심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070)4677-5729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공동 주관으로 4월 15일 '장애인의 날 기념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장애인 및 가족, 복지관 종사자 등 60여 명은 △사찰음식 연잎 밥 만들기 체험 △연꽃 만들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주지 탄웅 스님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관 종사자들 모두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월주 스님 법호 딴 '태공 중·고교' 기공

지구촌공생회, 3월 29일 착공식 개최… 10월 완공 목표


날레포 태공중 · 고등학교의 첫 삽을 뜨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및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의 법호를 딴 학교가 케냐에 문을 열었다.

지구촌공생회는 3월 29일 케냐 카지아도주 날레포 마을에서 '날레포 태공중 · 고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약 1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태공 중 · 고등학교는 180여 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4칸과 교무실 1칸, 과학실 1칸, 도서관 및 기숙사 등으로 구성되며, 올 10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날레포 마을 주민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부지 2만 5,200평 양도, 모래 제공, 1000권 교과서 제공, 울타리 및 전기시설 설치, 자립농장 조성 등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구촌공생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날레포 마을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열악하고, 인근에 중 ·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하루 반나절을 걸어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중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여학생들은 조혼, 임신, 노동착취 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구촌공생회 케냐지부 탄하 스님은 "교육은 케냐의 미래다. 태공 중 · 고등학교가 무사히 건립돼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며 "건립 기금을 모아준 지구촌공생회 후원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EXO 세훈 中팬클럽, 굿월드에 기부

세훈 생일 맞아 150만원 전달



유명 아이돌 그룹 EXO 멤버인 세훈〈사진〉의 중국 팬클럽이 불교계 해외구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굿월드 자선은행(이사장 양종헌)은 "세훈의 중국 팬클럽 '트위드 포이즌(twinned poison)'이 빈곤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세훈의 이름으로 150만원을 기부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트위드 포이즌은 세훈의 생일인 4월 12일을 맞아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굿월드 자선은행은 "소중한 기부금을 모아준 팬클럽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기부금은 전액 필리핀 산페드로시 쓰레기 마을 어린이들의 교육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 창립된 '굿월드 자선은행'은 종교 · 인종 · 사상을 초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으로 운영되는 국내외 어린이 구호 단체이다.

신성민 기자

"미래복지, 지역사회 중심 '풀뿌리 복지'로 개편"

남기철 교수, 4월 12일 미래복지포럼서 주장



변경된 주요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불교복지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1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이슈'란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남기철〈사진〉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다.

남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감소, 고령층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 종사자들의 빈곤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복지의 형태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미래 한국 복지의 형태로 △자유주의형 △공공성 강화 △지역과 공유하는 생태주의적 전략 총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유주의형'은 국가가 복지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미국 ·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는 복지관련 시장경제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형태다. 또한 '공공성 강화'는 국가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의 보건 · 사회 서비스를 약화하며, '생태주의적 전략'은 지역사회 및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형태를 따르고 있다"면서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로 가늠한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 복지에 대한 투자 없이 '자유주의형'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저발달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남 교수는 "미래 복지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을 소개하며 "'찾동사업'은 공공사회복지사 등 공공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공공성을 확대하겠단 취지"라면서 "특히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보편적 방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확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풀뿌리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상민 진각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불교계 복지재단 산하기관 직원 120여 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게이트볼로 즐거운 노년기를"

제11회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4월 8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11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회에는 120여 팀 720여 명의 선수와 노인회 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열띤 경합 끝에 교동면 대룡A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교동면 읍내팀, 3위는 망월 여자팀과 양갑C팀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회장 주변에는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진료와 주재희 약손봉사단 발마사지 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상담 및 지사모집

●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명상담!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학생들에겐 학과선택. 효율적 학습법. 좌,우뇌발달. 진학년도 성적여부. 학교예측. 부와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잘 될까 그래프를 보며 상담이 진행된다. (학생 3,500명. 성인 2,500명 대상,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조사결과 인생 전체에 대한 적중률 85%

지사 운영 대상

종교인(스님). 교육분야. 상담심리사. 철학인. 직업상담사
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한국어 능통자 환영)
● 학생용 (남.여) ● 성인용 (남.여)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 안내 : 매주 화 · 목요일 명리학 강의



비 전

●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 부모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
●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
●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

프로그램 유형

생년월일 입력	설문응답	설문응답(재학생)	숫자에 얽힌 운세	주민번호와 후천직업
[고객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검사종류 학생( ) 성인( )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윤달여부 네(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숫자입력
쌍 둥 이 네( ) 아니오( )	안 내 /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가) 귀하가 전공하는 과목은 계열 : 학과 : (나) 현재의 과정은 어디에 해당 4년제( ) 전문대( ) 기타( ) (다) 재학중인 학교명 첫자는? ( )	선 택 숫 자 / 다음의 숫자 중 선택하고 싶은 숫자에 클릭하셔요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검사하기
핸폰번호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다 음 검사하기	
이메일				
내신등급				
검사하기 평생운( ) 1년 신수( )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1년 신수 5장 출력 ※설문응답 15장 출력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

진로적성힐링 상 담 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4월 중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공지능의 위협 인간 욕심이 만든다”

미붓아카데미 ‘인공지능, 붓다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이상헌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이 어느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10년간 1000억 원을 들여 국산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을 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기대’로 나뉜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이상헌 세종대 교수는 4월 8일 열린 미붓아카데미 강좌에서 ‘인공지능, 붓다의 시선으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다. 다만 사람이 이를 나쁘게 사용했을 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붓아카데미는 ‘불교 안의 과학, 과학 안의 불교’를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방배동 사찰음식점 마지에서 열린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상헌 교수는…서강대 철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와 가톨릭대 강의전담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철학회 사무총장과 생명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융합시대의 기술윤리〉〈철학, 과학기술에 말을 걸다〉 등이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 ‘인간 뇌의 신경과학적 향상은 윤리적으로 잘못인가’ ‘칸트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포스트휴먼’ 등의 논문을 썼다. **사진제공=미붓아카데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때문에 근래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서양철학 중 칸트를 전공하고, 컴퓨터 관련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접하게 됐고요. 현재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전공한 서양철학 관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다만 대중이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전문가가 이해하는 그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괴리를 만들어낸 건 언론을 비롯해 기술자, 대중 모두 책임이 있겠죠.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이 상영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담은 것도 있고,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담은 것도 있는데요. 엑스마키나(Ex Machina, 2015), 그녀(Her, 2013), 터미네이터 제네시스(Terminator Genisys, 2015) 등 영화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영화들은 헐리우드영화죠. 헐리우드영화는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한 시대에 인간이 겪는 공포감 등에 중점을 둔 것이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인간과 매우 친합니다. 물론 로봇과 인공지능이 같은 건 아니고, 로봇 머리에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특정 학문 연구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지칭합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인공지능은 지각 능력, 계산 능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언어 이해능력, 자율적 판단 능력, 감정표현 능력 등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들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데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를 처음 언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컴퓨터는 전부 프로그램 내장형이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앨런 튜링은 1950년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인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튜링은 이외에 다른 걸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술적으로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골치 썩었던 것 중 하나가 독일군 잠수함이죠. 독일군 암호기계 ‘에니그마(Enigma)’가 생성한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암호체계를 깨뜨린 컴퓨터 ‘콜로서스’를 개발한 게 앨런 튜링입니다.

다음은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1903~1957)입니다. 현대적인 컴퓨터 개념을 창안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해는 1956년입니다. 인공지능이(AI)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존 맥카시(John McCarthy, 1927~2011)입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기계의 지능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 ‘인공지능에 관한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라는 학술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능력 의견 분분
“인간 넘어설 수 있다” VS
“실현 불가능” 주장 대립
가장 중요한 건 사용방법

프랭크 로젠블럿(Frank Rosenblatt, 1928~1971)은 1957년에 ‘퍼셉트론’이라는 최초의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뉴런이 수천 개의 뉴런과 연결돼 있는 형태인데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은 순차적입니다. 즉 직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망 모델은 병렬처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1997년 체스대회에서 인간챔피언을 이긴 인공지능 딥블루와 2011년 퀴즈대회 ‘제퍼디’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왓슨이 전문가시스템이라면 알파고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전문가시스템은 1980년대 초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정 분야의 모든 지식을 집어넣어 다루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기업 · 연구소 · 정부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하는데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입력된 지식 분야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입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한 기계학습,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죠.

토론토대학 교수 제프리 힌튼은 2006년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개발했습니다. 2012년 열린 세계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 ‘ILSVRC’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했는데요. 알파고 역시 이런 심층신경망을 활용한 인공지능입니다.

이처럼 딥러닝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과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뒤에도 다루겠지만 인간의 정신에는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도 있고 도덕심이나 의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우 중요하겠죠.

미국 철학자 존 설(John Searle, 1932~)은 인공지능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을 구분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 1931~) 등 약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의 지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 넘는 인공지능 가능할까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물음들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은 가능한가?’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2030년이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이 없어지고,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능가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시절이 온다고 예견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문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 특이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단순히 지능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는 지능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지능 차이는 양적 차이이고, 질적 차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양적 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동물은 자연법칙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도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온전히 받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칸트는 그 영역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그 로봇은 생명을 가진 것으로 봐야할까요? 이런 물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생명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현상이나 생명체를 설명하는 데 연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이는 인공지능을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불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겠죠. 영화 ‘인류멸망보고서’에 등장하는 로봇 RU-4입니다. 본래 목적은 사찰 가이드죠. 이 영화에서는 마치 로봇이 득도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인명’이라는 법명도 있고요. 영화 마지막에는 스스로 전원을 끊습니다. 다른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HAL9000은 우주탐사선 승무원을 모두 죽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이기지만 인공지능의 마지막 멘트는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불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시스템처럼 세상 모든 법문을 다 집어넣어도 깨달음이라고 하긴 어렵고, 인공지능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조직화를 통해 다른 상태로 진보해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서양철학을 공부해서 깨달음과 계몽을 비교해봤습니다. 계몽은 근대적인 개념이죠.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깨달음은 욕망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미성년자의 잘못을 되도록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지성을 스스로 사용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계몽입니다.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죠. 계몽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계몽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경계와 분별을 넘어서서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심의 경지를 말하는데 계몽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성을 예리하게 갈고 닦습니다. 즉 경계와 분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경계와 분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깨달음의 자유는 해방이나 벗어남과 같지만 계몽의 자유는 스스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가정하지만 계몽은 원칙적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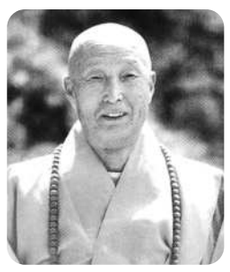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과 인지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 분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 등 철저하게 개발된 기술을 갖고 특정 영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나 딥블루나 비슷하겠죠. 그만큼 상업화된 거죠. 진정한 인공지능 연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있는 또는 영혼을 가진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왓슨이나 딥블루,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위협이 되는 건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이 나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대중불교운동!!

법화 보현 관법 수행 지도사 모집

일생 여래 성직자로 함께 할 분 환영



■ 출가 수행 과정 : 총본산 및 지역 사원 수행
■ 유발 법사 과정 : 수행 후 지역 전도사 수행
■ 수행 과정 : ❶ 지관(자력) 염불(타력) 각 7일
❷ 용맹정진(중도삼매) 보현 관행법 21일
■ 자격 과정 : 전교사, 전법사, 전도사, 대법사
■ 수행 기간 : 5 ~ 6월 중순 입방 예정(수행 후 수계 건당)
■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2장

원할시 본 사암에 상주할 승려(비구 · 비구니), 유발법사(남 · 녀),
일반신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수행 참선 기도 중 선신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와 함께 기도
※적정열반체험 보살 인왕 대선사 직접 지도

총본산 | (재)불교여래종 총본산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 043-731-2261 | 010-9292-4828(명안스님)

대본산 | (재)여래종 대본산 전통사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625번길 22
☎ 031-734-3205 | 016-363-6923(인왕큰스님)

소원을 이루는 진언주력명상 그리고 광명사 기도

우리가 살면서 업의 과보(변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면서 살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인류의 재앙이 도는 시절 지각변동(지진)이 일어나고 괴질(괴이한 질병)이 번지는 시절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이때 대광명선원에서는 자성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마니반메훔 진언 명상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대 의왕이신 「관세음 보살님의 모다라니 주력」과 「옴마니 반메훔 호흡의 명상기운」은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신체 주위에 내재해 있는 모든 나쁜것을 전부 분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과 기능을 발휘하여 만유생명을 개척하고 발생, 발전하는 추진력으로 우리의 삶에 건강, 사랑 부를 이끌어 주는 운명의 기운을 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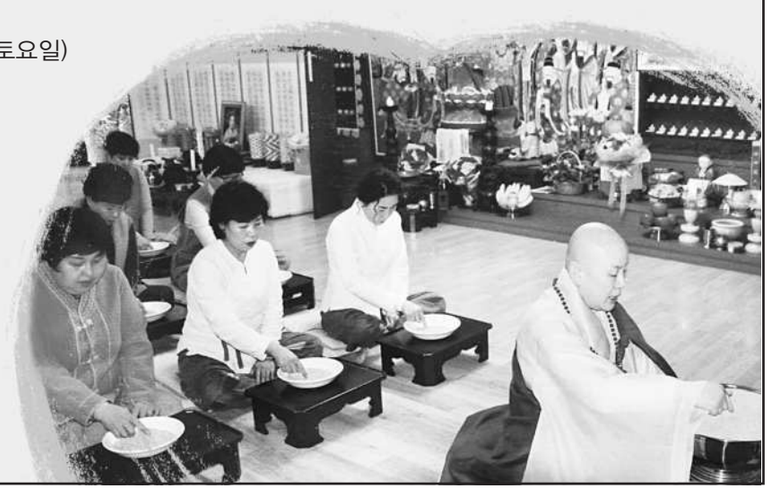
이에 기도동참하실 불자님들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석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 복 전 : 무한한 빛의 운기를 발하는 「옴마니반메훔 광명사」를 기도 속에서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지도스님 인해,덕후 합장
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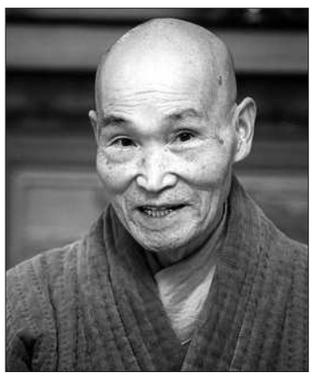
■ 기도일정 : 매주 주말(1박 2일)
• 그 첫번째 기도가 5월 셋째주(토요일) 양력(5월 21일) 시작됩니다
■ 매주 선착순 40명만 함께합니다. 전화 예약 받습니다.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옴 · 까 · 훔’ 3자 진언호흡함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뚫립니다.

■ 문 의 : 대광명선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대승불교 안의 염불선 위치 조명한다

청화사상硏, 23일 '대승불교와 염불선' 세미나


계율을 중시한 대표적 선승이자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스님.

대승불교 안에서 염불선의 위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승불교와 염불선'을 주제로 제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 사상과 실천이 어떤 대승경전에 근거하는지를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대승불교 경론 상에 나타난 염불선과 선정 위치'를, 동국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관무량수경 16관법과 염불선'을, 최동순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법의 수승체계 확장에 따른 육묘법문의 호흡체계 채택'을 세미나에서 각각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동국대 외래교수 정운 스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대승불교 속에 나타나는 염불선 사상을 조명하는 불사는 매우 중요하다. 청화 스님도 〈아미타경〉 등 대승 경전을 실상염불선의 주요 소의경전으로 삼았다"면서 "염불선은 신앙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세계 불교와 소통할 수 있다. 앞으로 학회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염불선학의 기초를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인공지능, 불교적으로 이해하려면?

불교평론, 지승도 교수 초청 열린논단 개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을 불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논단이 마련된다.

불교 학술계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공동으로 4월 21일 '인공지능의 불교적 이해'를 주제로 4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가 맡는다.

지 교수는 모든 사람을 이익을 주는 인공지능은 과학과 철학 종교를 통섭하는 초과학에 실마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10년간 붓다의 철학과 과학을 접목한 인공마음과 지혜시스템에 관한 신기술 연구에 전념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그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을 펴낸 바 있다.

불교평론은 "세기의 대국이 끝나고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과 공포가 교차했다"면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단순히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불교 역시 인공지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02)739-5781 신성민 기자

문화재 다량소장처 유물관리 교육

불교중앙博 14~15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6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유물관리 교육'을 4월 14~15일 이틀 동안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물관리 교육은 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본 및 전문 소양 교육으로, 보유자의 자발적 관리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유물관리 교육은 문화재 관리 방법 및 관리 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와 해외 선진 지역 문화재 보존 · 관리 사례를 주제로 진행하며 전통사찰의 성격을 고려한 사찰의 종합 정비방법 및 문화재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법을 살펴보는 수업도 함께 진행됐다. 강의는 오전 9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은 국내, 국외 문화재 보존, 수리 사례, 사찰종합정비의 이해 등이 주를 이뤘다. 신성민 기자

"동의보감에는 불교 의학 사상 담겨져"

이기운 교수, 〈불교사연구〉 기고논문서 주장

의학적인 면에서 조선시대는 중국 의학에서 벗어나 자체 의학을 정립하는 시기다. 조선 초기 〈의방유취〉를 통해 삼국시대 이래 전통적인 향약의 정리가 이뤄졌고, 후기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 중국과 조선의 여러 의서를 통합해 현실에 맞는 의서 제작이 시도됐다. 또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을 통해 조선 특유의 사상의학이 제창되기도 했다.

조선 시대 자체 발행 의서의 근본 바탕에는 불교 사상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기운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사연구〉 8호에 기고한 논문 '조선 후기 의학서 간행과 불교'에서 조선 후기 발행된 〈동의보감〉과 조선 초기 의학서 〈의방유취〉 내 불교 사상에 대해 고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명나라 초까지 86종의 의서가 인용됐으며, 유교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불교와 도교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특히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불교의 사대설(四大設)을 차용하고, 장생술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호흡법인 '천태 태식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의보감〉 내경편 권1에는 "석가가 말하기를 '지수화풍이 화합해 사람을 이룬다. 근골과 기육은 모두 땅에 속하고 정, 혈, 진액은 물에 속한다. 호흡과 체온은 불에 속하며, 영명과 활동은 바람에 속한다〈하략〉' 고 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동의보감〉의 이런 설명은 근본불교에서부터 설하고 있는 불교의 사대설과 사대불순에 의한 사대병인설을 수용한 것으로 불교의학을 설하는 많은 경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중국의서들에서 인용된 것을 〈동의보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동의보감 등 조선 의학서들 불교 사대설 · 태식법 영향 多
"의사가 되려면 불경 읽어야" 실증적 사상 조류 추론 가능

〈동의보감〉 내경편 제1 기(氣)편에는 호흡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책은 "식신(識神)이 탁생하는 처음에 정혈(精血)과 더불어 합해 배꼽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오직 배꼽만이 탯줄로 서로 이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호흡법은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돈 지관 법문의 십경중 병환경에서는 태식법을 닦도록 하여, 6가지 대치법 중 지(止)의 대치법이 〈동의보감〉과 같은 태식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의보감〉에서는 이 태식법을 〈진전(眞詮)〉의 인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나라의 〈섭생삼요〉에 〈진전〉 내용 전반부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천태 태식법은 천태 호흡법으로 널리 알려진 수행법으로 중국의서를 통해 〈동의보감〉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의 의성(醫聖)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닌 몸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사상서이다. 특히 불교의 사대설과 천태 태식법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는 조선 의학서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 의학서 〈의방유취〉는 불교에 대한 영향이 더욱 적극적이다. 〈의방유취〉 1권에는 "불경을 읽지 않으면 대자대비의 덕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 정통해야 하며, 그 다음에 불교, 도교에도 통해 의학의 원칙과 심오한 기술을 알게 된다"고 서술돼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불경을 읽어야 하고, 불교에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방유치〉 역시 불교의 사대설을 인용하고 천태의 '육종기식(六種氣息)'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같은 조선 의서의 경향은 유 · 불 · 도의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조선 후기 사상적 조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불교사연구〉 제8집에는 △상산 혜관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여성구) △구화 지장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고영섭) △16세기 지방군현의 입역체제와 승려의 부역(이성임)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이종수) 등이 함께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0년 맞은 동국 불교, 위상 · 역할 재조명

4월 29일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개최

교내 국제선센터서 법회 · 세미나
서원식 · 에세이집 봉정식도 진행
"불교발전 원력 다지는 계기로"

불교계를 대표한 항일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 한국 근현대 문단을 이끈 미당 서정주, 불교시문학의 거장 김달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백성욱,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옹 스님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답은 동국대 불교학과다.

동국대 불교학과가 창설 1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불교 중흥에 기여한 동문들의 업적을 재조명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김용표)와 불교학과(학과장 고영섭)는 4월 11일 서울 인사동 음식점 지리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내 국제선센터에서 제110주년 기념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전신 명진학교는 1906년 5월 8일 개교한 불교인재 양성 교육기관이었다. 점차 기관이 커지며 불교사범학교, 중앙학림, 중앙불전 등으로 승격됐고 후에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했다. 불교인재 양성의 맥은 단과대인 불교대학(불교학과)로 이어진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장은 "110년간 배출한 동문은 3000여 명으로 이 중 군법사 500여 명, 교법사 50여 명, 교수 100여 명 등 한국불교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먼저 식전행사로 명진학교부터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가 있기 까지의 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기념사진전과 풍물 길놀이패 공연이 펼쳐진다.

본행사인 1부는 기념법회로 국제선센터 대각전에서 진행된다. 법회에서는 이동배 교법사단장, 함현준 군법사 대표, 이윤석 불교학부 대표, 서정원 대학원 불교학과 대표 등의 서원의식이 진행된다.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을 시작으로 서옹 · 한암 스님 등 불교학과 동문 스님들과 김법린, 서정주, 조치훈, 목정배, 고익진, 이평래 등 근현대 동문학자, 2016학번 이성진 학생까지 세대별 81명의 대표글을 모은 동문에세이집 〈삼보의 언덕에 오르다〉 봉정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념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선진규 봉화 정토원 원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불교 제종단과 불교학과 동문', △함현준 육군 군법사의 '군포교와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박영동 동대부여고 교법사의 '종립학교 불교교육과 불교학과' △김한상 동국대 강사의 '한국불교학계와 동국대 불교학과' 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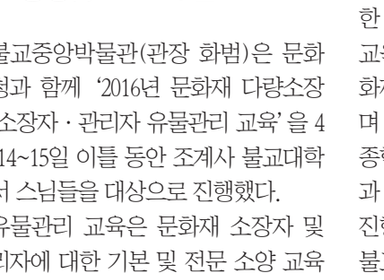
김용표 동문회장은 "한국불교 발전의 이면에는 불교학 발전과 불교인재양성의 터전이 되어 온 불교학과가 있었다"며 "전법에 전념한 불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다시금 불교 발전의 원력을 다지고자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12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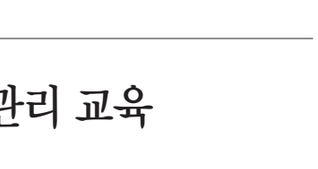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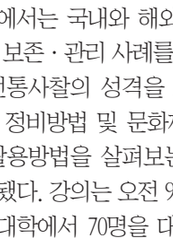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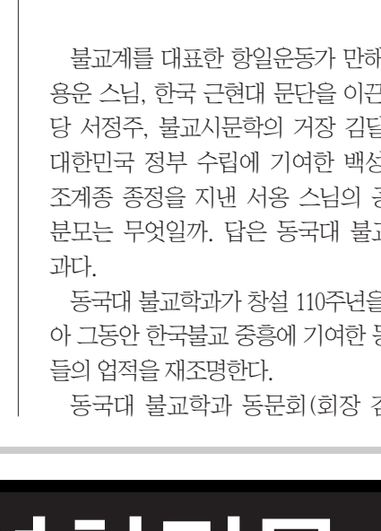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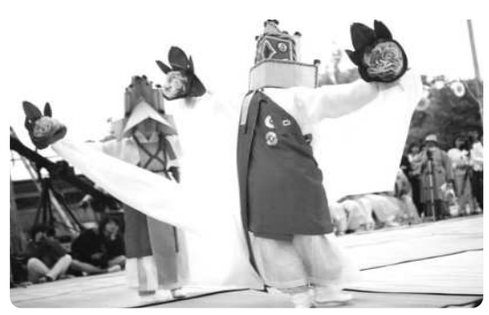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 10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창립기념 맞은 포교 도량들 역량 모은다

미타선원 · 대광명사 · 바라밀선원 등 창건 기념법회

경상권 도심 포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원 및 사찰이 잇달아 창건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창건을 기념한 부산 미타선원, 대광명사, 바라밀선원, 진주 월경사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며 포교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아울러 나눔으로 창건의 기쁨을 회향하며 그동안 발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대중에게 전했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4월 20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부산 남포동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미타선원은 '마음 편한 절'이란 목표로 현대인들의 힐링 쉼터로 자리 잡았다. 특히 행복선수행학교를 통한 신행 교육과 명상상담센터 '희망과 사랑'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창립 기념 법회는 주지 하림 스님의 봉행사 및 이웃사랑의 보살행 후원금 전달,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행복선수행학교 교장 월암 스님의 법문과 합동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하림 스님은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마음 공부와 명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행복 할 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뜻이다"며 "이것은 부처님의 출가한 목표와 다르지 않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평소 딱은 지혜로 보현행을 나타 낼 수 있도록 나눔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4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대광명사는 부산 해운대 내 정법도량을 지향하며 불교대학을 통한 경전 공부와 실천을 강조하고 참된 불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심 힐링 · 전법도량 발돋움
지역 사찰로서 면모 일신 다짐



도심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원 및 사찰들이 연이어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 기도 · 수행 · 정법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사진은 4월 20일 미타선원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개산대재를 개최한 모습.

기념법회는 특별한 내빈은 따로 초대하지 않았다. 대광명사는 "신도들이 곧 불보살이며 그들을 위한 날로 정해 그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대광명사는 그 날 찾아온 불자 300여 명에게 차량용 호신불과 생일 떡을 나누며 함께 축하했다.

주지 목종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전법이 답이며 불국토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도량으로 성장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10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봉행을 봉행했다. 바라밀선원은 창건 당시부터 시작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지난 3월 20일 제2차 천일기도를 입재했다. 포교를 발원하며 김해에 문을 연 주지 인해 스님은 현재 김해 연지공원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2층 규모의 법당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주지 인해 스님은 불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전법 도량을 서원했다. 아울러 바라밀선원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경사(주지 명구)는 창건 40주년을 맞아 '창건 기념식'을 4월 9일 경내 일승전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수월 관세음보살 점안식'도 함께 봉행했다.

월경사는 진주 도심에 위치한 천태종 사찰이다. 특히 매일 밤 10시에 시작해 새벽 3시 까지 진행하는 관음정진기도에는 지역 신도 100여명이 꾸준히 참석해 열린 기도 도량으로 유명하다.

또한 매달 2째주 토요일에는 정기 법회를 열고 그 직후 3일 동안 특별 기도를 개최해 평균 300여 명이 기도 동참하고 있다. 월경사 창건 40주년 기념식에는 천태종 종단 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장, 불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명구 스님은 "신도들간의 화합과 열린 사찰, 기도 사찰로 더욱 일신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달구벌에 불 밝힌 자비의 등불

대구불총, 4월 9일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사)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는 4월 9일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기 위한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구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정효청장, 대구불교총연합회 소속 회원 스님을 비롯해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손창수 동화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효광 스님은 "우리가 고통을 부처님의 지혜로 정화시키고 내일을 위한 지비의 등불을 밝혀나가자"고 인사했다.

이후 점등식 참가 사부대중은 시내 중심가로 이동해 형형색색 연등을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9일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기 위한 점등식을 개최했다.

가난한 이웃 위한 나눔 전시 '훈훈'

혜우 스님, 8~12일 '존재의 시선'展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약수사 주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를 통한 판매 수익금은 모두 사하사암 무료급식소에 회향된다.

4월 8일~12일 동안 '존재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됐다. 4월 8일 개막식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자리했으며 함께 축하하고 마음을 모았다.

혜우 스님은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부처님 법당에서 초를 보고 살았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어 기쁘며 빛을 의미하는 초와 지금 나눔 활동의 뜻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전시 개막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은 사진 전시회를 4월 8일~12일 동안 '존재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 창립 8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4월 10일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정동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춘광 스님은 법어에서 "밝고 맑은 동대사의 기운은 8년 동안 사부대중의 기도원력 덕분"이라며 "청정하고 진실한 천태불자으로 거듭나 일체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종단과 사회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설했다.

주지 도산 스님은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절의 주인이다. 신심을 통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도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 평생교육원서 행복 방법 찾으세요

울산 정토사 '행복한평생교육원' 개원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 개설
마음관리 전문가 육성 나서
선업 스님 등 강사로 참여
"마음건강 명상법 전파할 것"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가 새롭게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시민을 위한 강의를 개설했다.

정토사 행복한평생교육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고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을 소개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평생교육원은 첫 강좌로 마인드케어지도사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타인의 마음 수련까지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심화 집중수련 기간을 거치면 마인드케어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진다. 마인드케어지도사는 학교 현장이나 감정노동자, 심인성 질환을 관리하는 마음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4월 15일 오후 7시 선업 스님(통담아카데미아 원장)의 '마음산업의 흐름과 마인드케어'라는 특강으로 시작해 7월 8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10시 30분 동안 이론 강의와 실참이 진행된다.

강사는 선업 스님(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이태호 ㈜ 마인드케어 대표이사와 손일권 대안(대학)교육기관 대표가 담당한다.

내용은 △마음산업의 흐름 △앉기 · 걷기 · 생활 SATI-Technic △자비관(慈悲觀)Metta기술 △마음물리특성 △마음의 구성과 기능 △기억법칙 △SATI법칙/마음화학반응 △마음공학 △수행철학 △행동원칙 △성격이해 △현대심리학의 흐름 △상담심리 △집중수행 등이다.

교육 장소는 정토사 경내 설법전이다.

행복한평생교육원 설립한 주지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와 명상 등을 지도했는데 이제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마음건강에 도움이 되는 명상법 등을 적극 소개하여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052)271-7003

하성미 기자

홍법사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

홍법사(주지 심산)가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식을 4월 7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거행했다. 회향식은 제1기 작심단기출가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제1기 작심단기출가 구법여행 6박 7일간의 자취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돌아봤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선자(62 · 선명화), 성여진(71 · 여여성), 강남희(81 · 무심월), 김해경(82 · 청정월), 조해수(81 · 수월행)불자는 수료증 및 108염주를 선물로 받으며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주지 심산 스님께 감사의 꽃바구니와 어간좌복 불사비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법사는 "새롭게 마련한 작심단기출가 템플스테이로 모든 일상 생활을 접고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기에도 수행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수행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앞으로 매년 4월과 11월 매년 두 차례 작심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는 제1회 작심단기출가 회향식을 4월 7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개최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추모재



호남 선맥의 기둥인 해안대종사 42주기 추모재가 부안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25일 대웅보전에서 해안대종사 열반 42주기를 맞아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전등회 재가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재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한 철산 스님은 "강직했던 스님의 높은 뜻을 잊지 않고 수승한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해안 스님은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비로전 보수불사 회향



1200여 년 전 통일신라시대 무진주(광주의 옛 이름)의 대황사에는 서민들이 부처님에게 지혜과 공덕을 비는 마음을 모아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을 모셨다. 이 불상은 한국불교 격변에 따라 1934년 증심사에 옮겨져 비로전 안에 봉안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4월 9일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모신 비로전 보수불사를 회향하고, 금동관세음보살 인등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보수불사는 지반이 약해 전각이 틀어지고, 여러 부재의 교체가 필요해 약 2억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4개월간 실시했다. 또 오래된 인등을 금동관세음보살 인등으로 교체, 새로 봉안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 100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듯 불교의 불사는 10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한다"며 "비로자나부처님은 부처님 광명을 상징하듯 빛을 형상한다. 빛고을 광주에 고을의 이름처럼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개암사, 산신대재 · 우금 문화제



신라시대 원효 스님 등 고승대덕이 수행하던 천년고찰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는 4월 9일 산신대재와 제3회 우금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전북불교의 중흥과 지역발전, 온 국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대재에는 24교구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봄꽃의 향연을 즐겼다.

이날 재곤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토속신앙과 융합해 불국토를 건설하자는 염원이 담겨있는 산신대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안 스님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발전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있다"며 "마침 절정을 이루고 있는 벚꽃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신대재에 앞서 최근 조성한 천왕문에서는 현판식이 열렸다. 오후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제3회 우금 문화예술제'는 사물놀이 공연과 서예가 김병기 교수의 서예 퍼포먼스, 테너 김형국, 국악인 이용선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개암동 벚꽃축제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가 펼쳐졌으며 전통놀이 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끝 아니기에 행복한 노년, 절에서 찾다

한마음선원 '행복한 사계절' 전국서 이어져

노인 위한 5주 과정 프로그램
만남 · 대화 · 용서 등 주제로
삶의 의미 찾아가는 교육 열려
6월엔 안양 본원서 만난다



4월 8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열린 '행복한 사계절' 진행 모습. 미술치료가 접목돼 노인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간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는 연구를 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근 한마음선원의 한마음과학원이 노인 신도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이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지난 4월 1일부터 5주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행복한 사계절'이다.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행복한 사계절 프로그램은 △1주차 사바의 인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소중한 만남) △2주차 내 인생의 보물찾기-행복하기 △3주차 미워도 다시 한 번(용서와 화해) △4주차 우리 마음, 한마음(한마음이 되는 대화) △5주차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의미 찾기)로 구성됐다. 각 주제에 맞춰 슬라이드, 명상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진행한다.

8일 진행된 2주차 강좌에는 불교의례, 혜찬 스님(한마음과학원) 핵심 법문을 시작으로 1교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나무그림 슬라이드)' '내 인생의 보물찾기' '옛날 영상보며 회상하기' '팀별 이야기' '전체 공유하기'가 열렸다. 이어 2교시 한정선 강사의 지도 아래 '소중한 만남'이란 소주제로 '내 인생에서 기억의 순간을 마음에 담아 그리기' '의미발표' '내 마음의 의미를 담은 배 띄우기'가 명상음악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금희 불자는 소감발표를 통해 "지난주 첫 강의를 듣고 일주일간 무엇이 행복인지 생각하게 됐다. 초발심의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혜월 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감사하다"며 "늘 자신의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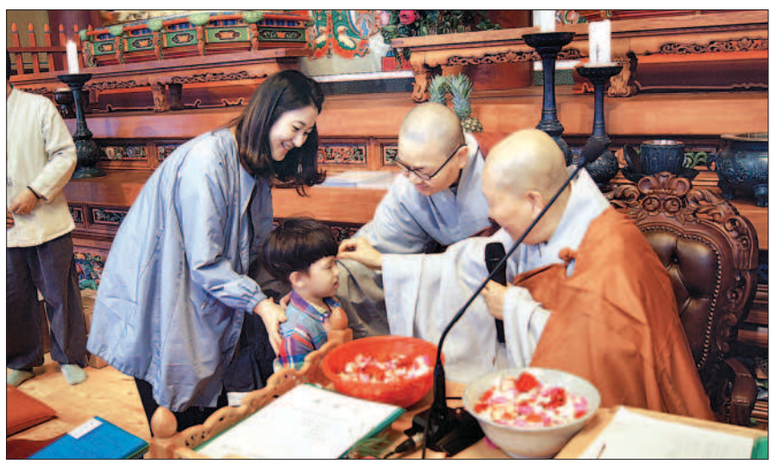
행사는 '노년은 끝이 아니다'는 의미로 재발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교수행으로 이를 극복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유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경험중심, 눈높이 교육, 다양방법(음악 · 율동 · 노래 · 미술 등) 활용, 불교 가르침 접목 등이 큰 특징이다.

한편 행복한 사계절은 2014년 조계종 포교원의 노인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당선돼 지난해 11월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진주, 올해 3월 제주, 4월 광주, 대구, 6월 안양 본원 순으로 열리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가족 모두 부처님같이"

완주 안심사, 영유아 수계법회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이 연비 대신 어린이 이마에 꽃잎을 붙여주고 있다.

전북 완주군 대둔산 자락에 자리한 안심사(주지 일연)가 천진불들에게 계를 설했다.

안심사는 정기 가족법회가 열리는 4월 10일 대웅보전에서 '영유아 및 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한 영유아 수계법회는 1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수계법회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온 가족이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수계법회는 어린이 20명, 성인 40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어린이들은 2개월된 영아부터 10살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일연 스님은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가족법회 동참가족을 대상으로 해마다 새봄이 시작되는 4월경에 수계법회를 열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해 불교계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재산, 영혼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만 수계할 것이 아니라 자녀, 손자손녀들에게 계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영유아 수계법회 의미를 설명했다.

일연 스님은 연비에 부담을 갖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오계를 별도로 지정하고, 연비 대신 꽃잎을 이마에 붙여주는 마정수기 형태의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세 자녀와 부부가 함께 수계법회에 동참한 강지만(전주시 장동) 씨는 "부모님과 함께 3대가 가족법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며 "세 명의 아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건강하고 행복한 불자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어린이 오계를 수지한 임동휘(대전시, 9살) 군은 "모처럼 밖에 나와 산에 놀러 가고, 절에서 부처님께 절하고 밥 먹고 돌아가니 마치 할머니랑 데이트나 소풍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지역 어르신초청 孝 나눔 잔치 '풍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불교계 잔치가 광주와 곡성에서 각각 열렸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는 4월 2일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해 '공양미 300석 효도대잔치'를 열었다. 효녀 심청 이야기를 간직한 곡성에서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한 이날 행사는 오전 순국경찰, 호국영령, 선망부모를 위한 천도재를 시작으로 어르신 의료봉사, 점심공양, 위안공연 및 선물증정, 사진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각초 스님은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는 공양미 300석의 의미를 담아 지역 특산품 잡곡 3kg 700포를 전달했다.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4월 6일 동구 지산교공원에서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제공하고 문화공연을 열었다.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동원사 어르신 행복잔치'는 올해 4회째를 맞아 사찰의 지역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장 스님은 "어르신들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부처의 자리는 부처다운 실천 끝에 온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㊹ 금각 · 은각요괴 만난 현장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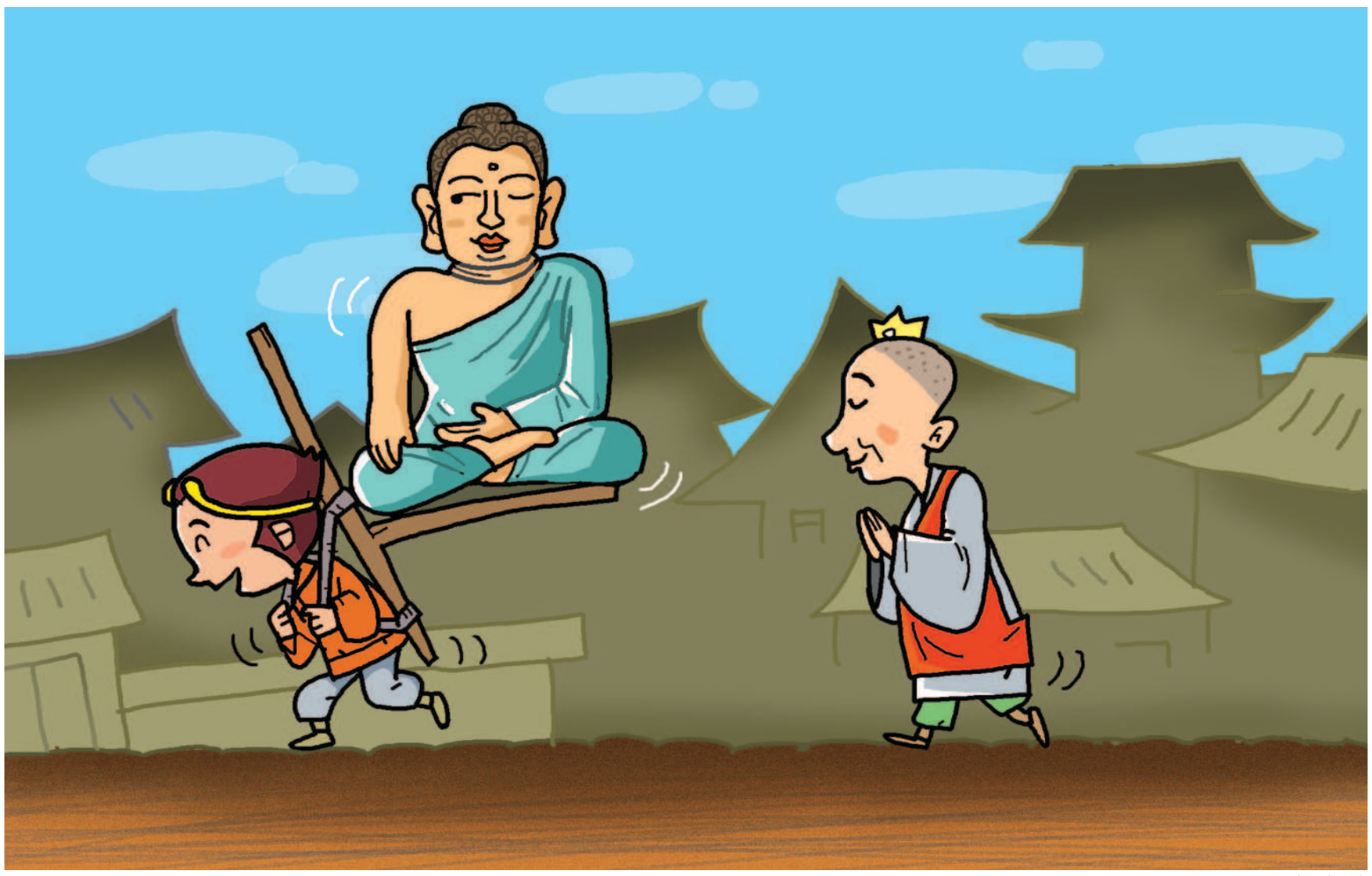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쉼 없이 나가는 길, 불퇴전의 길…. 공자님이 말씀하셨던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길이라고…. 아니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아! 세세생생 가야 할 길이지!

손오공 일행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다섯이 한 마음 되고, 손오공이 앞장서서 여의봉 뽐내어 앞길을 연다. 그 앞길을 턱하니 가로막는 험한 산 있네.

이름하여 평정산(平頂山)이라 현장법사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정말 이 산은 정말로 보통 아닌 요괴가 사는 산…. 앞에 많은 비보통(非普通) 요괴들이 나왔지만 이 산 요괴는 정말 슈퍼 울트라 비보통이란다.

일행을 뒷전에서 옹호하던 신관이 나무꾼으로 등장하여 미리 경계를 할 정도다. 연화동(蓮花洞)이란 동굴이 있고 그 속에 금각(金角), 은각(銀角)이란 요괴가 사는데 현장법사 잡아먹으려 초상까지 미리 그려놓고 목을 빼고 기다린단다.

손오공도 은근히 걱정되어 저팔계에게 순찰을 시키고는 이참에 저팔계 기강도 좀 잡을 생각으로 모기로 변하여 저팔계에게 붙어 간다.

아니나 다를까 저팔계 농땡이 실력 나온다. 한 잠 푹 자고 바윗돌 앞에서 거짓말 예행연습을 한다.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으면 돌산이라 하고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하면 돌 동굴이라 하고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쇠못을 박은 문이라 하고….

저팔계가 어떻게 처절하게 당하는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단단히 혼이 난 저팔계 다시 순찰에 나선다. 이제는 제 그림자에도 놀라

"형님, 따라오실 필요 없잖아요!" 할 지경. 억지로 성실히 순찰을 하던 저팔계가 역시 현장법사 일행 잡으러 나온 은각대왕 일행과 마주친다.

돼지주둥이 억지로 옷속에 감춰보지만 초상화 대조에 걸려 드러나 버리니 할 수 없이 한바탕 싸움~은각대왕 하나면 어찌 버티겠지만 뭇 졸개들 와르르 덤비니 수가 없다.

꽁꽁 묶여 연화동으로 잡혀가네. 저팔계 잡아와 뽐내는 은각대왕…. 형님 금각대왕 오히려 걱정을 한다. 저놈이 문제가 아니다. 제천대성 손오공이란 놈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를게다.

어허라, 이 요괴 이상하구나. 제천대성이라는 손오공 과거를 다 알고…. 아무튼 은각대왕 다시 나서고 술수를 부려 다리 부러진 도사로 변장…. 손오공 일행 앞에서 끙끙거리며 엎어져 있다.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 호랑이 만나 제자는 물려가고 자신은 도망치다 산기슭에서 굴렀다고…. 자비심 넘치는 현장법사 손오공에게 요괴를 업게 한다.

손오공은 이미 요괴인 줄 알지만 과거 전력이 있어 단매에 때려죽이진 못하고 뒤로 처져서 어디에 팽개쳐 죽일 궁리를 하는데 요괴도 그 속 빤히 안다.

신묘한 술법을 부려 수미산(須彌山)을 옮겨 손오공 머리를 누른다. 손오공 슬쩍 머리를 빗겨 왼쪽 어깨로 받아낸다. 끄떡도 없다.

놀란 요괴, 다시 아미산(峨眉山)을 불러 누르는데 이번에 오른쪽 어깨로 받아내고 여전히 씩씩하게 나간다.

정말 더더욱 놀란 요괴 이번엔 태산(泰山)을 불러내어 누른다. 손오공도 여기엔 당하지 못하네. 세 산에 깔려 피를 토하고 엎어진다.

이제는 되었구나!

요괴 현장법사 일행을 덮치니 사오정 혼자로는 감당을 못하고 결국 모두 잡혀 연화동으로 끌려간다. 은각대왕이 이렇게 공을 세워 돌아오니 금각대왕도 입이 째진다.

이제 맛있게 요리해 먹는 일만 남았구나.

"그래도 손오공 놈이 걱정되니 아예 속 시원히 뒤처리를 해 놓자!"

형님의 걱정에 은각대왕 큰 소리를 친다.

"졸개놈들만 보내도 돼요. 이 두 보물이 있잖아요?"

"오, 그렇구나! 그럼 보물 들려 두 놈만 보내자꾸나!"

도대체 무슨 보물이기에 제천대성 손오공을 그리 가볍게 처리한다는 말씀? 자금홍호로(紫金紅葫蘆)와 양지옥정병(羊脂玉淨甁)이라 상대방 이름을 불러, 상대가 대답만 하면 병속으로 빨려 들어와 온 몸이 녹아버린단다. 신통한 병, 무서운 병!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매개로 이런 신묘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손오공이 이 병에 빨려들면 어찌 될거나!

태산에 깔려 위기에 처한 손오공
연화동에 끌려간 현장법사 일행
죽음 아는 것은 삶을 잘 아는 것
"지금 이순간 매진하면 생사 초월"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 봤지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체를 한번 옮겨 보지요.

"선비는 뜻이 크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머니…. . 어짐(仁)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얼마나 무거운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얼마나 먼가!"

유가(儒家)의 말이지만 우리 불교에 그대로 해당시켜도 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우리 부처님 문중에서는 죽은 뒤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공자야 죽음을 묻는 제자에게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하였지요. 죽음에 대한 앎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중심으로 삼는 공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지요. 그러하기에 죽음 뒤의 일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고, 삶이 이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리라!"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아니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보살도를 행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에서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겠지요. 언제나 지금의 생에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서원으로 실천은 해 나가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생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요? 수많은 겁을 수행하여 부처에 이른다는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여기' 일 뿐입니다. 오는 생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의 생에 달려 있지요. 과거의 생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지금의 생을 보면 되지요. 언제나 지금과 여기,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을 아는 것으로 돌아오지요.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자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이 다를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과거의 생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또 미래의 생이 어떨 것인가 미리 내다보려 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여기! 과거와 미래가 한 순간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도 결국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슬쩍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도 끊임없이 보살도,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지요. 하하. 어떤 분들은 부처 이루면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초월하고 편안하게 있는 걸로 아시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인 까닭은 바로 그 부처님다운 실천에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끊임없이 남을 보살피고 수고롭게 실천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가 물었다지요. 부처님은 이미 완전한 경지를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짓는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란 자리는 가서 눌러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처다운 행을 이어나가는 모습,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삼쾌선생,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부처님은 한평생을 돌아다니셨는데 불상은 왜 앉은 불상만 있는 것인지요? 걸으시는 모습을 한 불상을 좀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면…. 돌팔매 날아올까요? 돌팔매 맞을 각오로 걷는 불상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부처 자리는 그렇게 가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처다운 실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애구. 돌팔매 무서워 '것, 것…'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쾌선생의 주장에 호응하는 분이 몇 분은 계시리라는 믿음으로! 다음 시간에 뵈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 나무, 소원종, 소원의 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 목 : 구룡의 기원
- 크 기 : 49.586㎡(15평)
- 작품소장사찰 :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수행 않으면 자기 손해… 진정한 유산 전하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③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힌다. 어쩌다 저렇듯 인성이 험악해졌을까? 우리는 모두 함께 업을 짓고 사는 공업중생이고, 서로서로 이어져 있는 연기적 존재이기에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순간 한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정법빠리사(바른 법에 귀의하는 수행과 나눔의 공동체)’를 만났다.

수행과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과 이웃, 나아가 사회를 맑은 에너지로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원력을 세운 불자들의 모임에서 희망을 보았다. 게다가 국내외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는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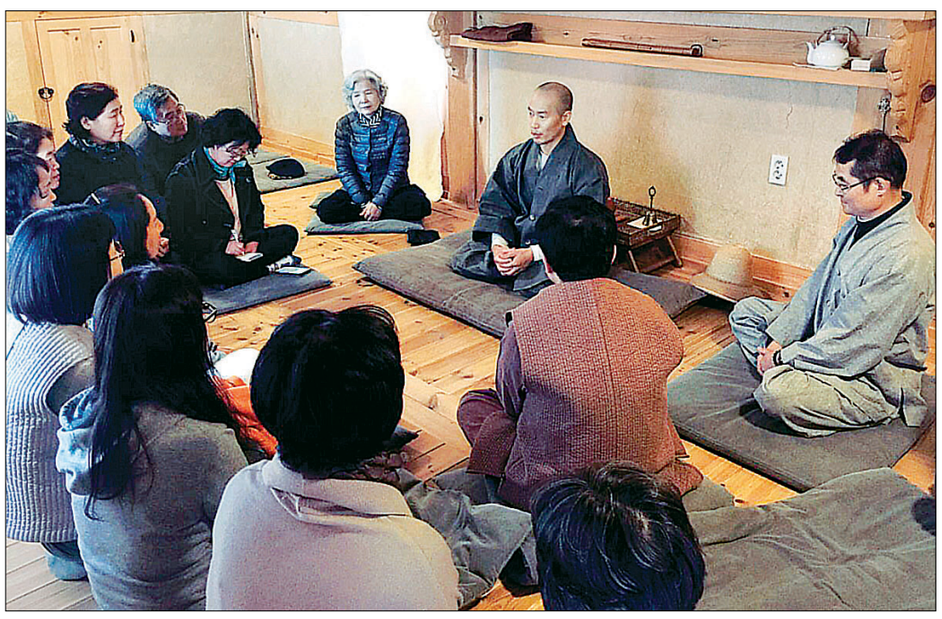
4월 첫째 주 주말, 나들이 가기 좋은 봄날이지만 1박2일 철야 수행과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에게 법을 구하고 인근의 법화림에서 수행하고 계신 덕현 스님을 찾아뵙는 ‘3차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구도순례’에 참여한 불자들을 보니 꽃보다 아름답다. 한 줄기 희망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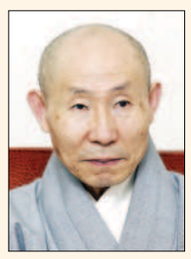
무여 스님이 순례단에 소참법문을 내리고 있다. “수행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하고 강렬했다.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순례단은 4월 2~3일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철야 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순례단이 지도에 따라 아비라 기도와 능엄주 수행을 하는 모습.



법정 스님의 제자 덕현 스님이 수행 중인 법화림에서도 수행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무여 스님은 194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6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20년 동안 수선 안거하였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부터 축서사에서 제방의 수좌들과 재가불자들을 맞이해 지도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축서사 선원 조실과 기초선원 운영위원으로 한국선의 가풍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환골탈태한 축서사를 보니 행복

봉화 문수산 축서사. 가는 길은 좋아졌지만 차량 정체가 순례단의 발목을 잡았다. 낮에 출발한 차량은 저녁노을이 다 넘어가서야 축서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었다. 첩첩한 앞산은 아슴푸레해서 더욱 멋졌고, 축서사를 품은 문수산의 진경산수화 같은 풍광에 여기저기에서 “정말 좋다. 축서사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축서사(鷲棲寺)는 독수리가 깃들여사는 절이라는 뜻이다. 독수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서기 613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인 축서사는 을사보호조약 이후 의병이 전국적으로 궐기하자 일제가 의병을 혁파하기 위해 대웅전만 남기고 전소됐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삼성각 한 동을 새로 짓고, 6.25 전쟁 직후에 요사채 한 동이 신축됐다. 이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축서사가 여법한 사격을 가지게 된 것은 현재 사찰을 이끌고 있는 무여 스님 덕분이다.

사람이나 도량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했던가. 1988년 수행력 높은 무여 스님이 축서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새롭게 축대를 쌓고 도량을 넓히고, 전각을 신축해서 참선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환골탈태시켰다. 스님은 그동안 봉화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간화선풍(看話禪風)을 불러일으켰다.

축서사 선원은 5개월 안거, 하루 15시간 결제로 유명하고, 축서사 템플스테이도 365일 상설되어 축서사에는 출 · 재가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의심은 간화선의 생명

축서사의 맑은 고요, 그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턱 놓여지고,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선지식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법한 그 절의 분위기가 말해준다. 유유상종,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식의 영향을 받아 공부가 무르익어 보인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바로 축서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혜오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설명이 명쾌했다.

“간화선은 화두에 의심을 일으키는 공부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지갑을 찾아 헤매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꼬’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잘 안 들 것입니다. 간화선의 의심은 계속 물으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으면 부싯돌로 불을 붙이듯이 진짜 의심이 되고 의심의 덩어리인 의정이 생기고 마침내 화두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삶이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선 수행에 대한 신심이 솟구친다. 이어서 본격 철야 정진에 앞서 삼귀의례, 108참회, 아비라 기도, 능엄주, 수행다짐, 사홍서원으로 이루어진 기도법회에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성철 스님께서 “참선 수행 전에 아비라 기도와 능엄주를 하라”고 강조하신 까닭을 알 것만 같았다. 특히 호궤합장을 하고 아비라 기도를 하는데, 마치 몸과 마음에서 묵은 탁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 명현 현상인지 마장인지 모르겠으나 평소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들썩였다.

45분 정진에 15분 포행의 철야정진을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었다. 역시나 아비라 기도 때부터 올라오던 목이 아픈 증세와 기침이 심해졌다. 목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겠으나 기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염송할 때는 기침소리가 그 속에 묻혔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적막을 깨는 기침에 민폐를 끼칠 수 없어서 도반들과의 정진을 포기했다. 정해진 방사에 돌아와 ‘이 무슨 현상인가’ 의심하다 보니 새벽종송이 들린다. 새벽예불, 어쩌면 이리 여법하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무여 스님 덕분이라 생각하니 스님의 소참법문이 더욱 기다려졌다.

“인류 위해 수행 · 포교해야”

이윽고 진행된 무여 스님의 소참법문. 스님은 청소년기부터 존재와 삶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상사에 까지 취업했지만, 무한경쟁의 삶에 대해 고뇌하다가 결국 삭발 입산했다. 고뇌가 컸기에 더욱 치열하게 수행하여 공부의 힘을 얻었다. 그랬기에 무여 스님의 소참법문은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스님이 이날 설한 소참법문을 짧게 정리해본다.

“수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은 가장 높고, 행복지수는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의 1차 목표가 청안입니다. 늘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행복한데, 이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화두를 들되, 호흡에 의지해서 깊숙이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세요. 의심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일어나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수행이 자리 잡히면 의심이 순일하게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오묘한 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난 각본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든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잡스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사흘 만에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대학도 3류 대학을 한 학기 수강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도에 가서 힌두교의 집중수행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불교의 참선을 잘 배워서 자신의 일에도 집중해서 세계 초일류가 되었습니다.

요즘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수행이고, 마음공부입니다. 수행을 통한 두뇌계발과 자기 계발을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 좋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요, 인류의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좋은 새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3차 구도순례의 마지막 함께 참석한 24명의 도반들과 함께 정진 소감을 나누었다. 모두 한결같이 무여 스님의 가르침과 도반들과 함께 수행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일래향 보살(70)은 “집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끊겨서 아쉬웠다.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어서 참석했는데, 참 좋았다”면서 “저는 공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바쁘다”고 말했다.

삶의 순간은 늘 일기일회, 늘 한 번뿐인 만남이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만남을 할 것인가? 모두가 선지식이다. 선지식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축서사 인근의 법화림에서 수행 중인 덕현 스님, 스승인 법정 스님을 꼭 빼닮은 스님을 뵈니 기쁨이 솟아난다. 법화림에서 덕현 스님의 법을 듣고 차를 대접받는 청복을 누리니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일기일회(一期一會)가 아니겠는가.

정리=사기순 민족사 주간

정법빠리사 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

정법빠리사 4차 선지식 순례는
‘이웃종교와의 만남’ 이 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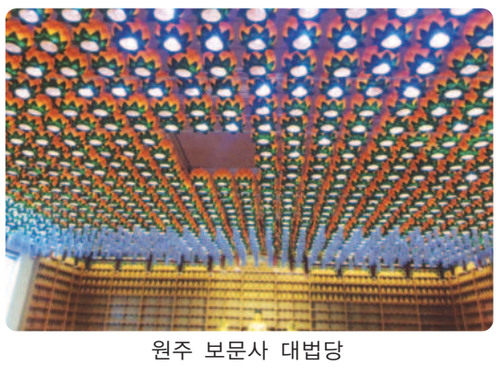
일 시 : 2016년 5월 28일(토)~29일(일)
선지식 :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문 의 :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010-5217-2878)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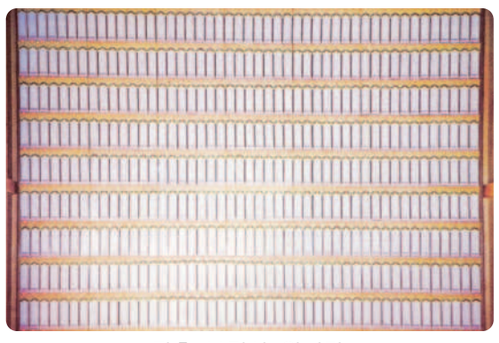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불교 자주화의 꿈 물거품 되다



1929년 1월 3~5일 각황사(현 조계사)에서 개최된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에 참가한 불교계 대표들의 기념 촬영. 사진=〈한국불교 100년〉(민족사)



宣誓文

仰惟我
本師釋迦牟尼世尊과
宗祖太古國師ㅣ爲首하사十方三世一切
如來와西天東土歷代
祖師는均廻 慈鑑하사特垂 明證하옵소서竊念
正法本體는迥絶興衰언마는衆生이異機하야或見汚
隆이나然하나危急에瀕함이今日朝鮮佛敎와如한者
ㅣ未有하다하노이다朝鮮佛敎는寺刹이九百에過하
니建設이不爲不多하며僧尼는七千을數하니法類ㅣ
不爲不衆이며一千五百有餘年의歷史도不爲不久언
마는奈之何百弊가俱生할새弟子等이此를匡救하며
挽回코자함이二十餘星霜을積하엿스나現著한功勳
이無多함은團結의力이弱하고進取의道를失함에坐
在함을切感하노이다更念호니
如來의禁戒가條章이井然하야不備가無한것마는百丈
和尙은淸規를制하고雲棲法師는共住規約을定하얏
스니隨方毘尼로因時制宜함이不得不然일새弟子等
도수에朝鮮佛敎禪敎兩宗宗憲을制定頒布하야大衆
을統率하고萬般을維新코자하오니伏願
佛祖는加被하시고神祇는擁護하소서弟子等은心肝을
瀝하야敬虔히誓言을仰宣하오니異日他時에此盟을
渝하는者ㅣ或有하거던
聖賢이齊擯하시고天이共誅하소서恭宣하노이다。
本師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六年一日四日
奉佛弟子嗣祖沙門今番僧俗大會出席者等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에서 제정된 종헌. 12장 31조로 구성된 이 종헌은 일제하 불교계가 스스로 정한 최초의 종헌으로써 불교의 자주, 자립을 통한 민족불교를 지향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찰령과 사법(寺法) 등 일제가 규정한 법과 대응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실행에 많은 난관이 뒤따랐다. 사진=〈한국불교 100년〉(민족사)

32. 사찰령 체제의 현실

1910년 8월 29일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직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원종의 종정 이회광은 종단의 정식 인가에 협조를 얻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10월 6일에 그는 일본 조동종과 원종 간의 연합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하였다. 연합조약의 성사는 일본 조동종의 한국포교사 다케다 한시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는데, 내용상 한국불교 전체를 일본불교의 한 종파에 종속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이 12월 무렵 국내에 알려지자 개종역조의 매교 행위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1911년 1월 이후 한용운, 박한영 등 선각적 승려들이 주도하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등 영호남의 전통적 거찰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건립운동이 일어났다. 임제종의 종명은 태고 보우를 매개로 한 임제법통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한국불교의 주체적 종단인 임제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불교의 특정 종파와 연계된 원종도 인가하지 않았다. 대신 총독부가 한국불교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정하였다. 이에 1911년 6월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반포하였고 1912년에는 일본과 같은 본말사 제도에 기초한 조선불교선교양종 30본산제를 시행하였다. 이 사찰령 체제에서는 30본산 본사의 주지 임면권을 총독이 가지는 방식으로 불교계의 주요 인사권을 총독부가 거머쥐었고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도 총독이 관할하였다.

앞서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가 관철된 것은 서구열강의 압력으로 메이지 정부에 의해 기독교 금지조치가 해제된 1873년부터였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근대성의 상징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불교와 신도가 독자적 조직을 가지고 포교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89년에 선포된 일본 제국헌법에서 일본의 국체는 통치권의 정점에 있는 신성불가침한 천황임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제정일치적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천황과 국가권력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국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유를 허용함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보다 국가불교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적용된 식민지 조선의 사찰령에서도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찰에서 천황을 축원,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 강제되었다.

이처럼 사찰령 체제는 식민지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정치권력에 불교가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본산 내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본사 주지들을 중심으로 이를 '불교의 합법화' '은혜와 외호'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였다. 즉 1910년대에는 권력의 지원을 받는 불교의 중흥과 그로 인해 근대화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다. 이후 1915년 8월에는 '포교규칙'이 공포되어 신도, 불도, 기독교, 유사종교로 종교를 분류하고 포교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 간의 자격 신고와 허가를 의무화하여 총독부의 종교 관리와 통제를 합법화하였다.

1919년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민족의식과 불교의 자주성에 눈을 뜬 선구적 활동가들이 등장하였다. 1920년대는 3.1운동을 계기로 총독부의 식민통치 기조가 군대와 경찰에 의한 강압적 무단통치 방식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총독부 학무국 내에 종교과가 신설되고 학무국이 총독 직속으로 승격되었으며, 종교단체를 중앙집권화하고 그 대표자들을 회유하여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종교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각종 정치, 사회, 종교 단체 및 조직의 결성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였고 불교계도 그에 따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920년대 불교계 혁신운동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지도자 33인에 들어간 한용운과 백용성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 총책이자 재정모금 담당자인 월정사 출신 이종욱 등 대표주자들이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고 해외에서 승려 독립선언서도 발표되었다. 또한 진보적 청년승려들을 중심으로 1920년 조선불교청년회, 1921년 조선불교유신회가 설립되어 정교분립과 사찰령 철폐 논의가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교단의 중앙기구로 새로 만든 조선불교유신회 측의 총무원과 30본산 주지회의 측의 교무원이 서로 대립을 거듭하다가 1922년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교무원으로 통합되고 공식적 인가를 받았다. 또한 대표적 친일파와 일본인 유력자들이 모여 결성한 재단법인 조선불교단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1920년대에는 불교계에서 종교의 정치적 종속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었고 다양한 개혁론과 함께 혁신운동이 펼쳐졌다. 일본 유학승인 이영재는 〈조선불교혁신론〉(1922)에서 민주공화정 이념과 권력분립을 기조로 하는 혁신교단의 건설과 불교 근대화를 역설하였다. 이영재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여 범어 등을 배웠고 유학생 기관지인 〈금강저〉를 편찬하기도 했다. 1910년대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백용성은 불교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쳤다. 그는 신불교운동 일환으로 대각교를 설립하였고 선과 계율의 전통을 계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불교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식산운동을 벌였는데, 노농자립공동체 조직과 공장 설립 및 소비조합 운영은 교단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조선불교양종 30본산제 시행
본사주지 임면권 총독부 관할
정치적 종속에 비판 일었지만
식민지 체제 불교 속성 심화

한용운도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에서 대중으로'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 불교운동가로 활동하며 사찰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1922년 4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신교자유의 보편적 적용과 사찰령 폐지를 거듭 촉구하였다. 한용운은 사찰의 병합과 폐지, 승규 법식, 주지 취임, 부동산 처분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모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적하며 총독을 불교의 로마 법왕(교황)에 비유하였다. 그러면서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종교이므로 대우와 처리 법령이 동일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구미인이 관계되었기에 관대하게 대하고 불교는 약자의 모임이라서 자유를 구속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1921년에는 백용성, 송만공 등에 의해 선학원이 창립되어 전통 선수행의 계승과 중흥을 내세우며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선학원 측은 1935년에 전국 수좌대회를 열어 종규를 제정하고 종명으로 조선불교선종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의 자주적 종단 건립을 위한 노력은 1920년대 이후 계속되어 1929년에 열린 조선불교선교양종 전국승려대회에서 종헌을 제정하고 자율적 교정을 추구하였다. 이는 비록 총독부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1931년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측에서 종헌의 실행을 촉구하며 사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등 정교분리와 불교의 자주화, 혁신을 위한 열망은 이어졌다. 한용운이 가담한 청년총동맹의 비밀결사조직인 만당의 활동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중국 본토 침탈이 본격화되었고,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1945년까지 전시체제기가 이어지면서 일제의 강압적 통치와 전시 총동원이 일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이 뿌리가 같으며 모두가 천황의 신민이라는 내선일체론이 횡행하였고 황국신민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일본에서는 1939년에 국민정신 진흥과 종교의 건전한 발달을 명목으로 하는 종교단체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질서와 신민의 의무에 위배되는 종교단체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의 종교탄압과 통제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앞서 1938년에 시행된 국가총동원법과 함께 전시통제와 총력동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까지 불교계의 자주권 추구나 혁신운동 또한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전시체제기에 모든 종교 및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추진된 심전개발운동에 불교계 주류세력이 적극 동참하였다. 국민총동원에 의한 전쟁 수행과 황민화를 위한 심전개발운동은 천황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국체를 각인시키고 감사와 보은을 행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계몽 운동이었다. 이와 함께 전승기념법회와 국방헌금 납부 등에도 불교계 지도층 인사와 여러 본사들이 나서서 적극 협력하였다.

교단 내부의 변화로 눈을 돌리자면, 1930년대 후반부터 총본산 건립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총독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 1941년 종명을 조계종, 총본사를 태고사로 하는 총본산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교단을 총괄하는 중앙 대표기관이 설립된 것이었지만 그 실상은 전시체제의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계를 통합, 관리할 중앙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허용된 것이었다. 총본산 체제는 종정이 행정권, 입법권을 가지고 총본사가 전국 본말사를 통괄, 감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총독부가 불교계를 직접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총본산 체제의 성립은 전시체제의 강화와 불교계의 총동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총독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기관 설치를 통해 교단의 자율권을 추구한 불교계의 오랜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불교계 주류는 기독교, 천주교, 유교 등 다른 종교 및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시국 강연, 학병 동원, 군수물자 기부 등에 발 벗고 나섰다. 황도불교를 지향하면서 사상과 종교 단속, 대중선동과 애국운동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황민화 정책과 국민총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것이다. 이는 정치적 종속과 현상유지라고 하는 식민지 체제 불교의 속성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말부터 문명개화의 근대화와 근대종교로서의 불교부흥을 내세우며 호교의 길로 매진했던 불교계는 식민지가 되면서 순응과 타협으로 일관하였다. 3.1운동 이후 불교계 혁신세력이 민족의식과 불교의 자주권을 각성하고 사찰령 폐지와 정교분리를 추진하였지만 식민지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태생적 한계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된 전시체제기에 정치권력으로의 종속은 더욱 심화되었고 황도불교로 표상되는 국가주의, 체제 지향의 색채 또한 더욱 짙어졌다. 이처럼 식민지 사찰령체제의 강고한 현실의 벽 앞에서 불교 자주화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신 정치적 굴종과 친일이라는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떠안은 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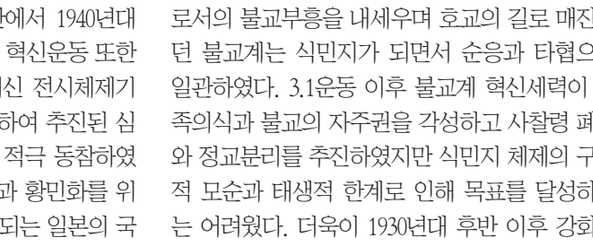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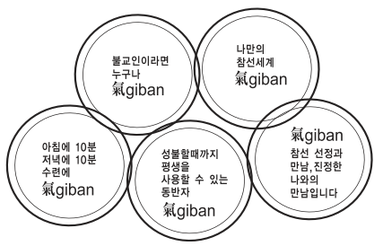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③

집중 아닌 그칠 때 삼매 든다

불교 명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면모가 '마음이 집중된 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얘기한 사유의 두 얼굴에서, 넘어서야 할 부적절한 모습 중 하나를 다스리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감관(感官)으로 인지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늘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유의 습관화된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었다.

'몰입 유형의 명상'이라고 불렀던 사마타(samatha, 止) 명상은 불교 명상의 한 축으로써 흔히 '마음집중'을 추구하는 명상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곧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된 상태'(三昧)가 그 목표로써 이를 계기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극물'(三毒)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명상의 의미라는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마타'라는 말의 어원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몰입'이나 '집중'에 앞서 '그침과 멈춤'이 좀 더 일차적인 의미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친다는 말일까?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스스로의 시각의식을 작동할 때면 늘 자아중심의 왜곡된 감정이 개입되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감정의 끼어들음을 제때에 알아차려 그칠 수 있도록 다스림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 유형의 명상'인 사마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한다. '그침'의 사마타가 '마음집중'의 명상으로 변모하는 지점이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몰입 경험'은 게임에서도 얻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 게임에 집중할 때의 모습은 명상에 잠겨 있는 수행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김밥 한 줄을 옆에 두고 생수통을 껴안고는 담배를 연신 펴가며 하나의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가히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와 같을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삼매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무엇도 그들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중하는 모습에서 경외감마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정녕 이러한 모습이 사마타에 가까운 명상의 모습일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면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중의 참모습에 있다. 게임을 할 때의 집중은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과정을 따라 상대를 죽이고 또 죽이는 쾌감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혹 그것이 하나의 블록 맞추기 또는 장벽으로 쌓인 블록을 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전하게 보이는 형태라 할지라도, 그러한 게임에서 발휘되는 집중력이란 마음의 흥분을 동반하는 모습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의 몰입이란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동반되는 빠른 손놀림만큼이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켜 그 흥분된 마음을 설정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몰고 가는 일차원적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기에서 보이는 집중된 모습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삼매와 비슷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본연으로 보자면 끝없이 마음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과정으로 점철된 과정일 뿐이다. 마음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그침 또는 멈춤'을 추구하는 불교 명상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게임하기에서 보이는 마음집중은 쾌감에 내맡겨 마음의 힘을 소진시키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다. 불교 명상의 '마음집중'과는 지향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림 · 나은영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미래 주역 품어주는 大母…

그대는 자비보살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백명숙 회장은… 1946년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불교 신행 활동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심을 지키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1992~2000년 금강암 신도회장 및 합창단장, 2001~2004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2001~2003년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1996년 대한적십자사 총재 봉사상, 2009년 조계종 포교원 불자대상 원력상과 2014년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정이 많고 나눠주길 좋아하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은 챙기지 않았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던 그 커다란 손은 거칠지만 아름답다. 그 수고가 항상 기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라는 말이 가슴속에 저릿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

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품어주는 대모(大母)가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 무릎을 굽히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 바로 백명숙(70 · 대동심)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이다. 그는 자신의 법명인 대동심(大同心)처럼 아이들을 모두 끌어안는다.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기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따뜻한 엄마의 마음 때문이다.

학생들의 꿈이 나의 꿈

4월 8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백 회장을 만나러 찾아간 거리에는 학원 건물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백 회장이 운영하는 학원 역시 쉬는 시간을 즐기는 학생들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지난 30년 동안 유명학원을 운영하며 매일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그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곧 자신의 꿈'이라는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

"오랜 시간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과 대면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맘껏 기뻐해주고, 반대로 아이들의 꿈이 좌절될 때면 마치 제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 회장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가정경제 형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7년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다. 이전에도 학원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IMF 이후부터는 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왜 공부를 그만두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학원공부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특히 발전가능성 넘쳤던 수재들도 많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전국서 유명학원 3곳을 운영하던 백 회장은 학원 안팎에서 조사를 통해 가정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았다. 그리고 매년 2월부터 대학입시를 볼 때까지 약 10개월간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학 합격 후에는 입학금도 후원했다. 셀 수 없는 금액이었을 터.

"돈으로 환산해 본적은 없어요. 매년 지원하는 학생 수도 달랐고,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가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운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물론 학생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멀리서나마 몇몇 감사인사를 전해 듣는 것이 고작이지만 백 회장은 그저 보람을 느낄 뿐이다.

"제가 도운 학생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커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저와 만날 때가 있어요. 감사인사를 하며 그때 주신 도움으로 잘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하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베품을 아끼지 않은 백 회장은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바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무렵 파라미타청소년협회(現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알게 됐다.

인성교육 첫 걸음 '이해'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탄생한 1996년 그는 남편인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을 도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이어 2007년 차기 회장에 취임한 그는 단체의 정체성과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파라미타는 불교지만 불교가 아닌 형태로 청소년들의 문화에 접근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정체성과 내실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본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다름 아닌 부산과 울산에서 유명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봐왔다. 성폭력, 왕따, 그리고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빈번히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단다.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작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요”



2015년 열린 부산파라미타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백명숙 회장(사진 왼쪽)이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2008년 구덕운동장에서 실시한 제3차 무차만발공양.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이취임식장. 맨 아래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백명숙 회장.

30여 년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2007년 (사)부산파라미타 회장에 취임
파라미타 ‘어울림 마당’ 활성화 시켜
2월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추대

문제는 청소년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곧 그들만의 소통이며 말 없는 대화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기껏해야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끼와 감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다룰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백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활동은 바로 파라미타 ‘어울림마당’이다. 어울림마당에는 부산지역 학생들이 다수 참가한다. 그리고 어울림마당은 학생들이 그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장으로 활용된다. 이들을 위해 마련되는 부스는 스포츠대회 뿐 아니라 다도, 춤 공연, 전통놀이 체험까지 다양하다. 또한 백 회장은 2008년부터 전국대회 규모의 ‘청소년 합창대회’를 열어 화음을 통한 화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체격은 커졌지만 마음씨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탓이겠죠. 합창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화합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합창연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외된 다문화 청소년도 우리 이웃

그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외에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위원,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5일에는 그간의 노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산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표하고 아우르는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1년 9월 창립됐다. 불교뿐 아니라 현재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을 비롯한 부산지역 34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양성, 연수 및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산 청소년단체 대표기관이다.

백 회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으로 추대되자마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바로 소외된 학생을 찾아 돌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협회 기관에 소속된 아이들은 그나마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이 파라미타나 스카우트 활동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품어 양지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는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후 부산시청 여성가족부서 국장을 만났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여론을 수렴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백 회장은 처음 만날 청소년들에게 제시할 새로운 콘텐츠를 고심한 끝에 ‘전통문화’가 주는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이 나라 이 땅 전국 방방곡곡이 바로 박물관이고 성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겐 열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체험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활동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에 맞춰 백 회장은 첫 나들이를 불국사와 경주 양동 마을로 정했다.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걷고 웃으며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닫힌 마음을 도닥거려 안아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이의 행복 발원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 백 회장이 선택한 문화라는 도구는 궁극적으로 포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신행과 나눔이라는 양 날개다.

백 회장은 매일 새벽이면 능엄주를 펼치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발원한다. 이어 참선 수행으로 아침을 맞는다. 그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과 함께 멀어졌던 불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행복한 마음은 곧 봉사로 이어졌다.

백 회장은 해마다 봉축을 맞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원들과 무차만발공양을 준비한다. 그동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3000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해 나눴는데 올해에는 부산 연등축제에 맞춰 송상현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인과(因果)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곧 진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위한 씨앗을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문화나 봉사 · 나눔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有水 千江月) 만리무운 만리천(萬里無雲 萬里天). 천 개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뜨고, 만 리에 구름 없어 만 리가 같은 하늘이네. 법당 주련에 많이 쓰이는 장엄염불 구절이다. 모든 강물에 달이 비치려면 1개뿐인 그 달은 무엇보다 밝아야 하고, 맑은 하늘이 되기 위해선 구름 한 점 없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미래의 대들보들을 품어주는 백명숙 회장이 밝은 달로, 구름 없는 하늘로 거듭나 천진불에게 부처님 광명을 비추는 등대가 되길 응원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눈보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양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부질없는 것을 좇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다. ‘나도 혹시 그런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난 아니야!’라고 부정하며 당당하게 외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법회를 할 때마다 종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 대중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이기에 확실하다고 믿고,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거짓투성이 오물들이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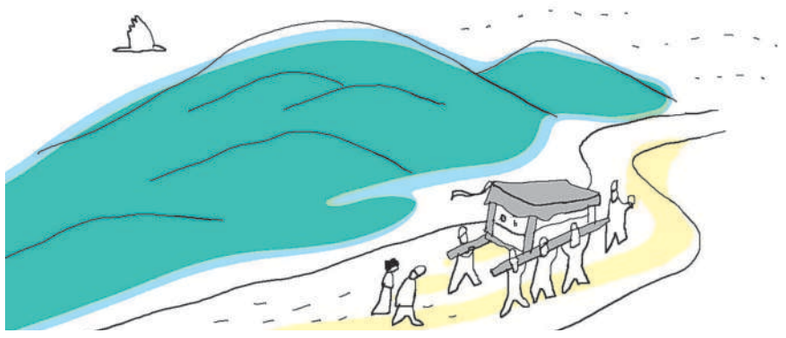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지 못할 것은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도 한편으로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허상을 좇다가 끝내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매를 해준 한 남녀가 결혼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부랴부랴 두 사람을 불러 상담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한창 만날 때는 그렇게 좋아 죽더니, 갑자기 웬 이혼이란 말입니까?”

“스님, 결혼 전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도저히 안 맞아서 못살겠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둘이 이미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헤어지려는 주된 이유는 하나였다. 서로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였다.

선남선녀들이 기분 좋게 결혼을 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결혼 전 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취해 허상이 생기고 이에 매몰된 것이 나중에 고통을 낳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허상을 잘 파악하고 맞춰가며 살았다면, 혹은 내가 부질없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건 아닌지 성찰했다면 조금은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와는 별개로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아니 안 하는 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교육을 잘 받고 외모가 뛰어나도 자신의 짝을 못 찾고 헤매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때로는 자식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러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진실한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조언을 해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부질없어라, 부질없어라.”

본인의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초췌한 얼굴 위에 잠시 미소를 짓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다. 어머니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계셨던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한마디로 잘라 부질없다는 말로 생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다.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그날에 무슨 말로 일점을 찍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이 세상의 허상에 매달려 생기는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끝〉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 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010-9049-001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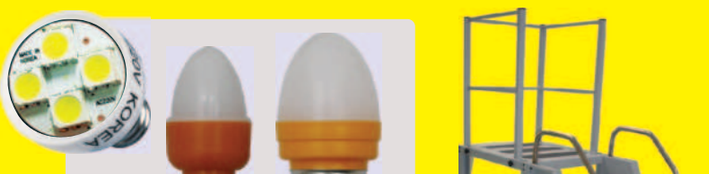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생멸문서 진여문에 들어가는 법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한 다음 본문에서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다. 기신론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究竟覺)이란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먼저 오음(五陰)과 육진(六塵)에 대해 추구해 볼 것을 권장한다.

오음이란 오온(五蘊)의 구역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한다.

• 색(色) : 물질적인 요소로 형체와 색체를 가지는 것이다 범어 rupa를 번역한 것으로 파괴 되겠끔 되어 있다는 뜻이 있다.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수(受) : 감수기능이다. vedana가 어원이며 아는 작용 또는 기능이라는 뜻이다. 육근에 (六根)에 의하여 일어난다.

• 상(想) : 상상(想像)기능이다. samjna가 어원이다. 무엇을 가지고 안다는 뜻으로 인간의 의식에 일어나는 표상작용이라 할 수 있다.

• 행(行) : 움직임을 뜻한다. 어원 samskara는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 행에 의하여 일어나며 또 그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도 행이다.

'나'는 오온의 화합물에 불과 다른 존재와 관계 맺어 존재

• 식(識) : 의식기능의 중추인 것이 식이다. 어원 vijna는 '분별한다' 또는 '쪼개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식(識)을 여러 가지로 분류 설명하는데 본능적인 천박한 지각적 단계에서 절대적 지유와 온갖 덕의 원천인 진여에 이르기까지 깊고 얕음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오음은 결국 인간과 인간 주변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육진(六塵) 경계 곧 모든 객관의 대상세계는 그 자체로서는 의식이 없는 존재이며 마음에 의하여 의식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방으로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중생들이 왜 진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릇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릇된 집착(邪執)은 나에 대한 고집으로 이른바 자아관념에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아견(我見) 때문에 진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아견을 인아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아견이란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기적 고집을 말하며, 법아견은 외부의 객관적 존재인 사물에 대하여 실체가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나'라는 인간 존재는 기실 오온(五蘊)의 화합물에 불과하여 색, 수, 상, 행, 식 어느 것도 영구불변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과의 관계 하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불교에서는 일찍이 무아설(無我說)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리저리 사량하고 있다.

초심자들이 불법(佛法)을 배우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불법의 참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인아견의 다섯 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다. 가령 여러 경전 속에서 여래의 법신이 적막한 허공과 같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허공이 바로 여래의 본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허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분별지가 식별해 낸 한 모드(mode)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어떤 실재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곧 망심이 식별한 것이며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를 가진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혼돈된 주관적인 생각이 없어지면 그 때 모든 상대적인 존재양식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직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마음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살의 자비심은 중생을 위한 것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⑯ 시주의 주체는 누구인가

菩薩法身不依飮食而得存濟。大悲為食菩薩身存。悲心如火。欲施如飢。施與好食。菩薩樂與無有厭足。悲如大海施如沃焦。救濟心為水如沃焦吞流。欲向菩提以眾生為伴悲心為體。施無厭足如海吞眾流無有止息。

(보살법신불의음식이득존제。대비위식보살신존。비심여화。욕시여기。시여호식。보살락여무유염족。비여대해시여옥초。구제심위수여옥초탄류。욕향보리이중생위반비심위체。시무염족여해탄중류무유지식。)

一切眾生來 各各索異物
(일체중생래 각각색이물)
菩薩皆施與 心無有疲 ㄴ
(보살개시여 심무유피권)
諸苦惱眾生 盡皆為除滅
(제고뇌중생 진개위제멸)
設有未除者 心無有厭足
(설유미제자 심무유염족)

번역

보살의 법신(法身)은 욕심과 먹을 것을 의지하지 않지만, 구제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큰 자비심을 먹을 것으로 삼아 보살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니, 자비심은 불같고,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린 것 같아야 합니다.

베풀되 좋은 음식으로 베풀고, 보살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비심을 큰 바다처럼 베풀되 메마른 곳에 물을 대듯이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마음은 물이 메마른 곳을 적시듯 감싸고 흘러야 합니다. 보리심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중생을 동반자로 삼고 자비심을 근본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시하되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야 하며, 바다가 뭇 강물을 삼키듯이 그만두거나 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와서 각각 다른 물건을 찾거늘, 보살은 모두 베풀어 주면서도 피로하거나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중생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모두 다 제거하고 없애도록 돕되, 설령 없애지 못한 이가 있어도 마음에 싫어하거나 만족하여 그만두지 않습니다.

해설

이 부분은 시주체품제삼(施主體品第三), 즉 '시주의 주체에 대한 품'의 결론이다. 앞서 설명 했듯이 중생이 중생인 것은 번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의 근본실체는 바로 고통과 번뇌다. 그 고통과 번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욕구(欲求)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생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습성을 지닌 그 미혹된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제바라보살이 바라보는 중생은 가련하고도 불쌍한 존재다. 늘 욕망과 필요에 굶주린 존재다. 중생은 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바란다.

그러면 보살(菩薩)은 그 필요와 욕망을 한없이 채워주려 애쓰는 존재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배고픈 것이 안타깝고 가련하여 견디질 못한다. 그리하여 보살은 모두 베풀어 주면서도 배부른 아기를 보면 기쁨에 겨운 엄마가 되어 베푸는데 결코 피로하거나 권태로워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설령 중생이 고통과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중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과 최선을 다했으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마음먹지 않는다. 바다를 다 퍼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다.

눈물로 감탄하노니, 얼마나 위대한가.

아, 보살(菩薩)의 자비로운 마음이시여!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영혼에 대해

〈중론(中論)〉과 〈백론(百論)〉의 무아(無我)부분을 인용해 올린 글에 대해 댓글과 전화로 묻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 답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영혼이 있어 윤회(輪?)를 거듭한다면 새앙쥐의 영혼과 코끼리의 영혼이 크기와 부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물론 영혼이 물건이 아닌 이상 크기와 부피를 따진다는 게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던지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은 '같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지 않고 '다를 것'이라고 답한다면, 새앙쥐는 새앙쥐로 거듭 태어나야 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로서의 윤회를 거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에 이르면 49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49일이 지나면 영가의 지은바 카르마(Karma)에 따라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주체가 사람뿐이 아닌, 축생등의 모든 생명체 있는 것들이 죽은 후 49일이 지나면 생(生)을 바꿔가며 윤회를 거듭한다는 논리일 것입니다.

북인도의 스리나가르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엔 만년설이 그대로 덥혀 있고 양국의 병사들이 더러는 농담도 건넬 만큼, 총을 겨누고 있으나 우리의 남북대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원주민들이 산삼을 캐오듯 녹아내리는 만년설의 빙벽에서 도롱뇽, 개구리 등이 갇혀 있는 얼음덩이를 들고 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얼음덩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마침내 얼음 속 개구리가 양지바른 곳에서 수만 년의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실지렁이를 준비해 개구리에게 주면 냉큼 실지렁이를 먹기까지 합니다.

이쯤해서 묻습니다. 만년설의 얼음덩이에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어죽어 있던 개구리가 얼음이 녹고 주변환경의 변화와 조성에 의해 거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49재를 천 번, 만 번, 십만 번 치러야 할 시간적, 공간적 의문부호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냉동 상태로 죽어있던 개구리의 영혼은 특혜를 누리거나 초능력이 있어 윤회를 멈추고 있었다고 궁색하게 답하지는 않겠지요. 이미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냉동 정자은행에 대해서도 살펴야할 문제입니다. 냉동된 정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죽음에서 부활한 누구처럼 난자를 만나면 새 생명이 됩니다.

해외에서 머문 15년 중 인도에서 머물던 3년 동안 모기, 빈대, 이, 벼룩 등 헤아릴 수 없이 살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모기귀신, 빈대귀신, 벼룩귀신의 괴롭힘을 단 한 차례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쯤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부처님은 〈잡아함경〉과 〈상응부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미꽃은 장미 줄기나 잎이나 대공이나 뿌리에서 찾을 수 없다. 뿌리와 줄기와 대공이와 잎이 건강할 때, 그리고 그 기능이 작동될 때 장미꽃이 피어오리는 것이며 햇볕과 흙, 수분과 바람, 자양분이 알맞게 골고루 갖추어져 있을 때 장미 줄기는 자라고 줄기가 건강할 때 장미꽃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연기법칙과 무아론은 하나의 진리 무엇이 실체로 남아 윤회 거듭하는가

사람의 존재도 눈 · 귀 · 코 · 입 · 몸 · 뜻이 색깔과 소리, 향기와 맛, 느낌과 분별의 작용에 의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할 뿐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기능이 사라지면 사람의 존재도 사라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구조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 · 발전해도 베일에 깊이 가려 있으며, 정신세계 또한 초능력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면밀히 원인을 살펴보면 필연적 조건과 상호의존적 연계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초능력 같은 기적을 몰고 온다는 일부 보도 등은 정신분열적 환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기법칙(緣起法則)과 무아(無我)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신체구조는 물, 바람, 불, 흙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운이 서서히 기능을 상실해가면 뇌 작용과 신경세포도 멈추게 됩니다.

온갖 작용과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무엇이 존재의 실체로 남아있어 윤회를 거듭한다는 것인지 살피고 또 살필 일입니다. 무아(無我)가 정리되지 못하면 영혼의 덫으로 윤회의 수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신축불사 낙성대법회

| 일시 | 불기 2560(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삼보에 귀의하옵고
공덕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동안 인연 닿은 신도님의 동참으로 용호동에서 대연동으로 이전하는 신축불사의 낙성대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조실 종호 큰스님을 모시고 제방의 스님들, 불자님들과 함께 낙성불사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선연공덕을 이루어 주시길 발원합니다.

불기 2560년 4월 좋은날에 …

주지 능후(효선) 정배 합장

›››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대연동) 못골성당 위
• 지하철 : 2호선 못골역 하차, 2번 출구 도보로 500m
• 버스 : 22, 24, 27, 40, 41, 42, 83, 83-1, 108, 138번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www.gongdukwon.net
JIJANG BUDDHISM MAIN CENTER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대연동) 전화 : (051)625-3886~7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탁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사)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수공의 현현” 칭송… 조선 후기 목불조각 절정

(倕工 · 중국의 유명한 장인)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⑦ 진열(進悅) 스님

18세기 전반 대표하는 조각승
영 · 호남 중심 1백여 불상 조성
통도사 목조사천왕상 조성 당시
‘가선’ 언급… 정2품 공명첩 받아

18세기 전반은 앞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 양식을 계승하거나 다른 조각승이 조성한 불상 양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불상을 만든 시기이다. 이는 전국 사찰 전각이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불상을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은 진열 스님이다. 그는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영남 지역에서도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모셨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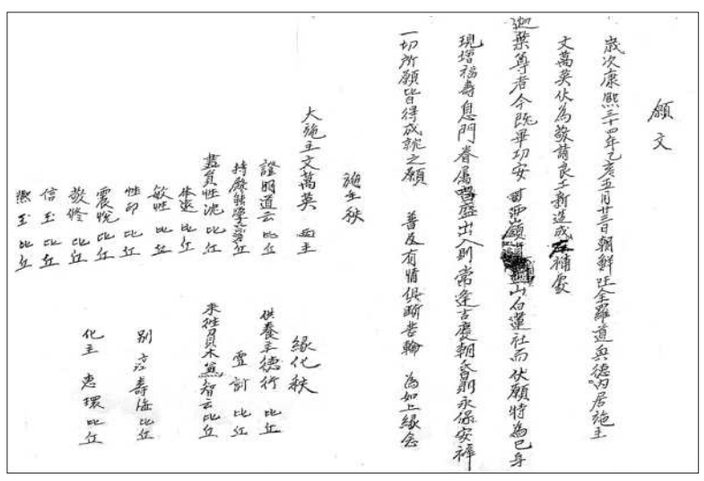
당시 대부분 불상을 만든 조각승을 화원(畵員), 양공(良工)으로 불렀다. 하지만 진열 스님에 대한 수식어는 다르다. 일부 문헌을 보면, 중국 황제 때 훌륭한 장인인 수공(倕工)을 빗대어 ‘목조각상의 수공(倕工)’으로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목수(木手)로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열 스님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작품은 전국에 걸쳐 10여 건, 백여 점에 이른다.

아직까지 진열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여러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복장 조사가 이루어져 그의 스승으로 추정되는 조각승이 밝혀지고 있다.





진열 스님의 1713년 작품 고양 상운사 목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목조보살좌상(사진 오른쪽). 이 불보살상은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긴 물방울 같이 U자형을 이룬다.
사진제공=(재)불교문화재연구소



1695년 전주 서고사 나한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사진제공=서고사

품은 1706년에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목조보살좌상(곡성 서산사 봉안)이다. 그때 진열 스님이 보살상 제작을 주도한 것을 보면, 최소한 1700년대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열 스님은 수화승으로 1707년에 경남 함양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1711년에 전북 임실 중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함양 사리암에 아미타불만 봉안), 1713년에 경기 고양 노적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상운사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만 봉안)과 만력 연간에 제작된 목조삼존불좌상(서울 도봉 천축사 봉안)을 개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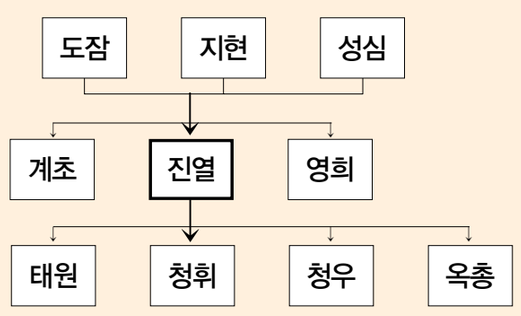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1718년에 경남 양산 통도사 목조사천왕상을 조성하고, 1719년에 전남 나주 운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개금하면서 시왕상을 개체(목포 달성사 봉안)하고, 1722년에 문수사 감로암 목조관음보살좌상(서울 봉은사 반야암 봉안)과 적조암 목조관음보살좌상(밀양 여여정사 봉안) 및 부산 범어사 비로자나불좌상을 개금하면서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진열 스님은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제주 용문사 봉안 목조여래좌상 등을 만들었다.

특히 스님은 1718년에 양산 통도사 목조사천왕상을 제작할 때 ‘가선(嘉善)’으로 언급되어 정2품(正二品) 문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이전에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진열 스님은 166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서 168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와 보조화승을 거친 후, 1700년대 초반부터 불상 제작에 우두머리인 수화승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스님은 주로 전라도와 호남 지역 사찰에 불상을 조성했다. 이는 주요 사찰의 주전각이나 부속 전각에 불상이 진열 스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대부분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진열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도잠(-1643-1688-), 지현(1648-1688-), 성심(-1695-) → 진열(-1695-1722-), 계초(-1688-1707-), 영희(-1711-1718-) → 태원(-1706-1748-), 청휘(-1707-1722-), 청우(-1722-) 등으로 이어진다.

표. 진열 스님의 조각승 계보



진열 스님이 만든 대표작이 봉안된 상운사는 북한산 영취봉(靈鷲峯) 남쪽 중턱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이다. 상운사는 1711년에 북한산성이 축성된 후,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하여 건립되었던 11개의 사찰 중 하나로, 1745년에 성능(性能) 대사가 간행한 〈북한지(北漢誌)〉에 “영취산 아래 133칸 건물로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다”고 언급돼 있다.

또한 1943년에 인진호(安震湖) 스님이 편찬한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1722년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는데, 편액은 노적사(露積寺)로 되어 있고, 대략 133칸이다. 1813년 승장 태월지총(太月智聰)이 중창하였다”는 기록들을 통해 상운사의 연혁을 알 수 있다. 천불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으로,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과 달리 관음보살은 크기와 조각수법이 달라 제작 시기와 작가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열 스님이 만든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61㎝로,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여 얼굴과 앉은키는 1:3.1의 신체비례를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과 거의 동일한 신체비례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긴 물방울 같이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처리는 네 겹으로 접힌 주름의 가장 안쪽 주름이 넓게 펼쳐지고, 나머지 주름은 물결이 일렁이듯 접혀져 있다. 반대쪽 무릎에 걸친 대의자락은 연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는 170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색난이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판이 위를 향하는 앙련형(仰蓮形)으로 처리되지 않고, 윗단을 수평으로 접혀 있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둘레에 대의(大衣)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본존 같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염보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 안쪽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따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보관 밑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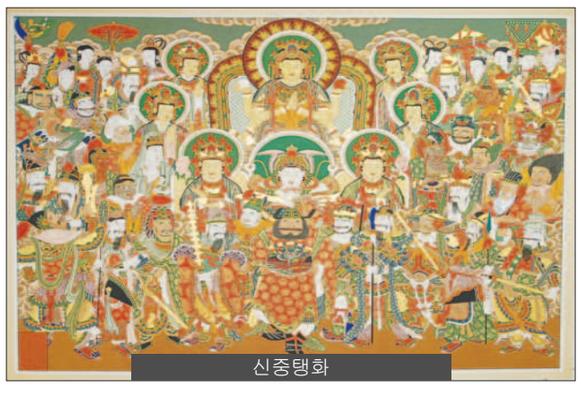
기존에 제작된 다른 보살상과 달리 어깨와 무릎의 폭이 좁아 얼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대의처리는 본존과 동일하고, 손의 자세만 다른데,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왼손을 가슴까지 들어 연화가지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지물을 들지 않아 1990년대 개금하면서 연화가지를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진열 스님은 명부전이나 영산전의 불상, 사천왕상 등을 만들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표 조각승이다.

진열과 그 계보의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태백 장명사 목조여래좌상, 부안 내소사 지장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순창 두암사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 목조여래좌상 등이 18세기 전반에 진열 스님이 제작한 불상과 전체적인 인상과 대의 처리 등이 동일하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옛 찻사발의 투박함서 순수를 보다

불일미술관, 김종훈 작가 도예전 개최

무료대관 행사도 실시


김종훈 도예가의 작품 '달항아리.'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김종훈 도예가의 '심산요 도예전- 순수(純粹)'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 도예가의 작품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순박한 도공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면서 옛스러운 찻사발의 소박함을 일정한 형식미로 드러낸다"면서 "도공의 수행자적 노력으로 조선 찻사발의 투박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도예가는 인터불고호텔 갤러리, 서울 백상기념관, 동아쇼핑(동아미술관), 법련사 불일미술관 등의 다수의 개인전과 초대전 등을 열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뉴욕 코리아 쏘사이어티, 터키 앙카라문화원,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 등이 있다.

이와함께 개관 20주년을 맞은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신인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전시무료대관을 기획하고 작가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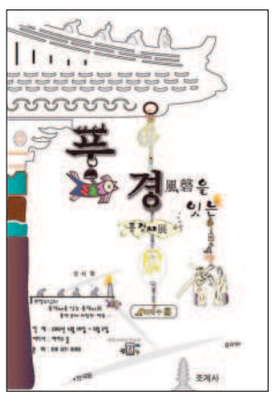
올 하반기(6~12월) 전시 가능한 작가에 한하며 모집부문은 평면, 입체, 복합, 미디어, 불교미술 등의 개인 및 그룹전이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으며 대관신청서와 전시기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불일미술관은 "불교계 최초 상설 미술관으로서 앞으로도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신인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처마 끝 풍경을 이어내니…

부명 스님, 5월 3일까지 '風磬을 잇는 風景' 전



풍경(風磬)은 사찰 전각의 처마 끝에 매단 종에 물고기 모양의 추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소리를 내는 작은 종이다.

사시사철 불철주야 바람이 이끄는 대로 소리를 내는 풍경은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즉,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세(警世)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근래에는 'Wind-bell'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 일반 가정집이나 상품점 등에 매달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인사를 대신하는 초병(哨兵) 역할도 한다. 음악·미술 등 문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쳐온 부명 스님이 풍경을 이용한 금속공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명 스님은 오는 5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동 아리수 홀에서 '風磬을 잇는 風景'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명 스님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금속 공예(종합) 작품들이 소개된다. 손 하트로 대한민국과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롯해 26종의 물고기와 12지신상, 각종 새와 동물 등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각양각색의 풍경과 바람판, 솟대, 캔들로 새롭게 해석돼 과거와 현대, 나와 세상,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부명 스님은 "작품에는 양과 음, 대와 소로 양분되어가는 세상의 경계를 소통코자 하는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다. 상대적 세계에 있는 너는 곧 나임을, '풍경을 잇는 풍경'이라는 인드라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212-5653

신성민 기자

국악 교성곡으로 만나는 붓다의 가르침

조계종 불교음악원, 4월 24일 봉축음악회



조계종 불교음악원 봉축음악회 '붓다' 공연 포스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계에서는 의식·의례 음악을 통해 불교만의 독특한 음악 예술을 구축하였을 뿐, 이를 대중화 및 체계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당시 작곡가 박범훈은 불교음악예술을 우리 한국전통음악예술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대중화 및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포교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이런 고민 끝에 현대 불교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연 창작국악 교성곡 '붓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초연된 '붓다'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조계종과 산하 기구인 불교음악원은 오는 4월 24일 오후 4시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불기2560(2016)년 조계종 불교음악원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붓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조계종단 최초로 설립된 종령 기구 불교음악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음성공양 포교 진흥을 위해 진행된다. 김회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았으며,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중앙국악관현악단이 담당한다.

또한 조계종 불락사 주지 상훈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전수조교 유지숙,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박애리·남상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교육조교 김묘선의 협연 등 다채로운 출연자들이 참여한다.

조계사혼성합창단, 봉은사어머니합창단, 도선사어머니합창단, 기원사합창단,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홀서
찬불콘서트·교성곡 '붓다' 공연
유명 국악인 남상일·박애리 참여
총 300명 출연 장엄·웅장함 선사

약사사합창단, 중앙불교합창단, 관상동여래사합창단, 로터스합창단 등 사찰 합창단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공연 참여 인원만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형공연이 될 전망이다.

공연은 1, 2부로 나뉜다. 1부는 유지숙, 박애리, 남상일 그리고 메트오페라합창단의 찬불콘서트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부처의 일생과 가르침을 담은 창작국악 교성곡 '붓다(작시 석성일, 작곡 박범훈)'를 선보인다.

국악 대중화의 선두주자인 박애리와 남상일은 이번 공연에서 '제행무상', '부처님오신날', '백팔번뇌'를 선보이며, 교성곡 '붓다'로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백미(白眉)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교성곡 '붓다'이다. 교성곡 '붓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양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양음악의 칸타타 형식을 빌어 작곡된 곡으로 부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총10장(50분)에 걸쳐서 부처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대서사를 담아낸다.

이번 공연 지휘를 맡은 김회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은 "1991년 교성곡 '붓다'가 작곡될 당시 작시를 맡으셨던 석성일과 작곡가 박범훈은 이 곡을 통해 세상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세계와 그 깨달음을 좇아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교성곡 '붓다'를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세계와 그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무용 활성화 마당 펼쳐진다

조계종, 불교무용대전 참가 공모
6월 10일~ 7월 3일 진행
진흥 방안 모색 세미나도


제1회 불교무용대전 대상작 이화석 전북대 무용과 교수의 '다비.' 올해에도 불교무용 진흥을 위한 불교무용대전이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린다.

불교무용 예술의 진흥을 모색하고 신진 불교 무용가를 발굴하기 위한 춤마당이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와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대학로 성균소극장 2관 스튜디오 SK에서 제2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구슬주머니가 첫 선을 보인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의 대중화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개 단체가 참가해 수준높은 전통·창작 공연을 펼쳤다. 제1회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불교의 상례절차를 소재로 한 '이화석 전북대 무용과 교수의 다비'가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하고, 구슬주머니가 주관단체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인기 작품까지 선정해 수상의 폭을 넓혔다.

이번 무용대전 기간에는 불교무용의 학술적 의미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세미나도 열린다.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용대전의 시작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불교무용의 개념 정리, 발전·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무용대전의 가장 특징은 모든 것이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를 위해 4월 11일 참가 공모를 발표했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며, 접수는 이메일(factory2013@naver.com)을 통해 받는다.

지원 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작품의 발표를 원하는 예술인 및 단체면 가능하다.

불교무용대전 주최 측은 "불교의 유입 이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불교무용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예술적인 시각에서 계승·보존돼야 할 소중한 전통유산"이라면서 "불교무용대전은 일반인에게 춤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무용계에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11-1779

신성민 기자

자연·문화유산 조화 HD영상을 찾습니다

BBS, 제1회 영상공모전 개최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개국 26주년을 맞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유산'을 주제로 총 상금 1,300만원 규모의 '제1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우리강산과 전통문화유산을 기록하며, 자연 환경 보전과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산과 물을 주제로 전통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의 HD화질 형식으로 장르제한은 없다.

개인 또는 팀으로 총 3작품 중복 참여 가능하며, 타 공모전에 출품한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며, 대상작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지급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연관성, 독창성, 기술 및 구성의 완성도 등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6월 14일 B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05-5302

신성민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6~2015.4.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툴텐최된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10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중독 치유하는 강력한 해독제는 마음챙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때

토마스 비엔, 비버리 비엔 지음 | 이재석 옮김
불광 펴냄 | 1만 8천원



바야흐로 중독의 시대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진다. 살아남기 위해선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된 불확실한 날들을 견뎌야만 한다. 힘겹게 지탱한 삶에 무언가 위안과 보상이 절실하다. 고도로 산업화된 물질문명 사회는 자극적인 유혹으로 넘쳐난다. 알코올과 니코틴을 비롯해 약물 도박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쇼핑 일 섹스 운동 음식 등 우리가 탐닉할 대상을 아주 손쉽게 제공한다. 그러나 중독 대상이 주는 희열은 순간적일 뿐, 그 대가는 혹독하다.

중독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과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하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 그럼에도 무기력하게 중독에 빠져들고 어느 순간 구제불능 중독자로 낙인찍힌다. 한 순간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 중독의 늪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지만 재발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지긋지긋한 중독서 벗어날 수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의 수행법인 마음챙김(mindfulness), 즉 '고요한 자각의 계발' 은 중독에 빠진 마음 상태를 해결하는 훌륭한 해독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알아차림)과 수용(받아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열린 마음이다. 마음챙김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한다. 우리가 평소 무심히 지나치는 주변과 자신의 내면에 고요하고 깊이 있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금껏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자각한다. 중독의 본질이 삶의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면, 마음챙김은 깨어 있는 상태로 삶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독의 대척점에 있는 마음챙김이야말로 중독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심리학자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이다. 두 저자 토마스 비엔과 비버리

일상 기쁨 회복, 중독 설자리 잃어
명상, 삶의 선택권 있음 깨닫게 해
명상 잘 하는 법은 명상 즐기는 것

비엔은 부부로서, 수많은 마음챙김 워크샵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독자들을 새롭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었다. 중독자들과의 실제적인 상담과 치료과정을 세세히 밝히며, 진정으로 그들이 중독의 굴레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안내한다.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렵거나 따분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명상은 애써 참으며 노력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저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즐거운 명상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일상서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을 제시한다. 명상을 잘 하는 비법은 명상을 즐기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마음챙김은 일상이라는 원재료를 지혜와 평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깨어 있는 마음챙김은 지금-여기서 현재 순간이 지닌 신선함과 풍요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며, 일상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준다. 다른 특별한 대상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의 공허함을 메우려 한 중독은 더 이상 우리 삶에 필요 없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가치 있는 의미로 명확하게 다가온다.

이 책의 서문을 쓴 G. 앨런 말라트(워싱턴대학 중동행동연구센터 이사)는 '명상이 중독행동에 미치는 관한 연구' 를 수행했다. 습관적으로 매일 술 많이 마시는 음주가를 대상으로 6주간 명상한 결과, 1일 음주 섭취량이 평균 50퍼센트 줄었다. 또 의료기관과 교정 시설서 치료중인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출소 후 다시 재입소 되는 상습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들 명상 코스 참가자들은 중독 물질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평온하고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현대인은 누구라도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중독에 포위돼 있다.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유혹과 자극의 과부하 속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 을 깨닫게 한다.

김주일 기자

중독 고통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1. 현재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지금' 에 충실할 때 과거를 치유하며 미래를 돌볼 수 있다.
2. 자신의 삶을 현재 집필 중인 이야기로 생각하라.
   고정된 삶의 각본을 뿌리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3. 검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일기를 써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면의 지혜와 연결된다.
4. 명상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여라.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과 더 이상 맞서지 않고 평온해진다.
5. 자연 속에서 여가를 활용하라.
   인간에게 주어진 고차원의 지적 · 예술적 · 영적 능력이 발휘된다.
6.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나에게 맞추려 하지 않을 때 건강한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7. 꿈이 보여주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라.
   꿈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단서를 제공한다.
8. 일터에서 마음챙김을 적극 활용하라.
   일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유지해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9. 슬픔, 걱정,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보듬어 안아라.
   긍정적 감정을 키울 때 진정한 기쁨과 내면의 평화가 깃든다.
10. 수행하라. 수행하라. 또 수행하라.
    직접 수행하면서 경험해야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산사순례, 현대에 효과적인 수행법"

향록스님 with 산사순례 프로젝트

향록 지음 | 도반 펴냄 | 1만 8천원



진주 송학사 108 산사 순례단 자비회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반야용선을 타고 출가한다. '108 산사 순례단 자비회' 진주 송학사서 향록 스님이 이끄는 순례단 이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버스 3대로 100여명이 움직이며 전국 사찰을 순례한 지가 8년 째다. 현재까지 순례한 사찰만 해도 96곳에 이른다. 순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한 사람은 무려 10여명이나 된다. 향록 스님 순례단은 여러면에서 유명하다.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그 규모면이나 오랜 세월 한결같은 그 여여함, 그리고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경건함 등등. 96곳서의 흔적들이 쌓여서 불교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순례단이 됐다.

향록 스님은 산사 순례가 현대에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순례의 기다림으로부터, 순례지를 향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녀온 순례를 기억하면서, 오롯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 집중력만 따져 보더라도 가벼이 생각하는 수행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향록 스님은 순례를 여법하게 진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100여

송학사, 8년동안 96곳 사찰 순례
수행자 기행문, 법문 가득 특징

명이 움직이면서도 1분도 어김없이 움직이고, 항상 수행과 예불에 초점을 맞추며, 먹고 마시는 것도 여법하게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잡스러운 활동들을 배제함으로써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순례 본연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96번의 순례를 하니, 함께 하는 100여 대중은 얼마나 큰 수행이 되었을까. 그것은 순례에 함께 참여하면 바로 알 수 있다. 100여명이 한마음으로 올리는 예불 소리를 들어보면, 이미 모든 분들이 보살의 경계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모두가 행복하고, 환희심 가득하며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 같다. 향록 스님은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함께 순례하며 환희심으로 수행에 동참하는 대중에게 감사해서 책을 내려고 결심했다고 한다. 책을 통해서 순례를 회상하며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한 번의 수행이 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96회의 순례에 함께한 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원을 이루기도, 병을 이겨내기도 ,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는 등 부처님 가피를 받은 예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야깃거리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순례를 함께하며 많이 행복해 함을 서로가 느끼게 됐다.

스님의 기행문이 일반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수행자의 눈으로 보는 모든 순례는 부처님 법문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또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 책이 바로 그렇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3년간 화엄 80권 번역… 일상용어 사용 축약

한 권으로 보는 화엄경

이상규 편저 | 해조음 펴냄 | 1만 5천원



경전 공부에 몰두하면서 집필 작업을 통해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전파하며 법보시로 아름다운 회향을 하는 이상규 변호사가 지난해 〈능가경 역해〉에 이어 이번에는 〈한 권으로 보는 화엄경〉을 출간했다. 저자는 3년여 만에 화엄 80권을 모두 번역하며 해설했다. 저자는 "이 좋은 화엄경 한역본이 흔히 한글 세대로 불리는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낡은 보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 같아 이 기회에 한역경에 한글 음을 붙이고 우리말 번역을 달되,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각주를 달아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는 집필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3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원고를 마무리 하고보니 책으로 출판한다면 10여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 돼 결국 화엄경의 방대성이 지니는 문제의 원점으로 회귀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던 중, 일반 법회에서는 화엄경 자체를 독송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엄경 약찬게〉와 〈법성게〉를 독송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그래서 불자들은 〈화엄경약찬게〉와 〈법성게〉에 익숙하다. 저자는 "어차피 이것은 화엄경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쉽게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며 "〈화엄경약찬게〉와 〈법성게〉에 대한 설명 형식을 빌어 화엄경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책은 화엄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전문용어보다는 평의한 일상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 이상규 변호사는 1952년과 1953년에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법제처 법제관과 문교부 차관, 고려대 법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환갑을 넘기며 불교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금강경의 세상〉을,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아함경 전권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7권〉으로 번역 출판했고, 2011년 〈법조인이 본 반야심경〉, 2015년에는 〈능가경 역해〉를 펴냈다.

김주일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래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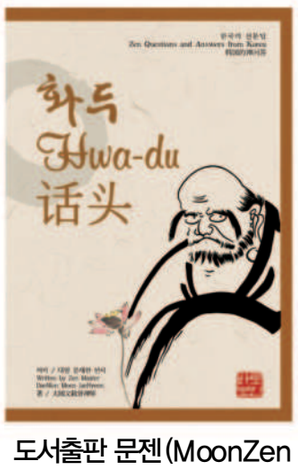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화 두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아픔 느낄 때 '아프지 않은 것'에 집중하라

美 정형외과의사, 진통제 대신 '명상' 처방

최근 진통제 부작용 고발 잇달아
'전인적' 통증 치료법 대안 주목
마음챙김명상 통한 통증 완화 효과
버진 "고통 없는 순간 인지하라"



미국 경제 매거진 '포브스'가 소개한 바바라 버진(Barbara Bergin)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이자 텍사스 스포츠 재활 통증치료 전문의다. 그는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신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진통제 남용을 방지하는 새로운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발표하며, 마취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처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도 "진통제 등 약물 과다남용으로 죽는 이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넘는다"고 보도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은 보다 전인(全人)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치료·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과 환자들은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을 진통제 대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경제 매거진 '포브스(Forbes)'는 4월 11일(현지시간) 마음챙김명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바바라 버진(Barbara Bergin)을 소개했다.

포브스는 "최근 미국 의학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을 치료하는데 매년 6천억 달러 이상이 소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 명상이 만성 통증 질환자들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바바라 버진은 텍사스 스포츠 재활 통증치료 전문의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신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버진은 "처음에는 내가 환자들에게 권유한 치유법이 '마음챙김명상'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관련 글을 읽고 알게 됐다"며 "평소 그들에게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주의집중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을 겪어왔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그 통증을 느끼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바로 그 순간이 통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버진은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환자들에게 하루 일과 중 통증이 없는 순간을 인지하도록 주문한다. 그러면 환자들은 갑자기 '유레카!' 하는 것처럼 그 순간을 인지하고,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는 고통을 줄이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

버진은 "근래 들어 많은 의사들이 마취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처방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비(非)스테로이드와 항염증요소제의 부작용을 알고 사용을 멀리 하기 시작했다"며 "나 또한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처방을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는 하나 방법은 하나다. 바로 '마음챙김명상'"이라고 강조했다.

바바라 버진은 "언제 어디서든 통증을 알아차린 그 순간 다른 곳으로 집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는 환자들이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통증과 싸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바바라 버진이 활용한 마음챙김명상은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바로 존 카밧진 박사가 개발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 요법이다. 'MBSR'은 불교에서 기원한 마음챙김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것으로 미국 전역과 전 세계 720여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포춘(Fortune)〉이 선정한 매출 상위 세계 100대 기업과 500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MBSR'은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섭식장애, 중독 및 암 등 각종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신체·정신적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자살 및 정신분열증에 이르기 까지 그 임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 비구니 사원, 방화 테러로 '잿더미'

빤냐와띠 스님 "비구니들, 생존 위협에 시달려"
태국서 비구니 출가 금지하는 것 가장 큰 원인


빤냐와띠(Pannavati) 비구니 스님은 4월 4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방화 테러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 태국 라용 지역의 '국제여성명상센터' 모습을 공개했다.

태국 라용 지역에 위치한 비구니 사원이 방화 테러로 인해 잿더미가 됐다.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국에서는 비구니 스님을 '반역자'라 일컫고,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테러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은 살해 위협에도 수차례 노출돼 왔다.

아프리카계 최초로 상좌부 교단에 출가, 해마다 태국에 방문해 비구니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빤냐와띠 비구니 스님은 4월 4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3일(현지시각) 라용에 위치한 국제여성명상센터의 본관과 사원에서 발생한 '방화 테러'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란 글을 게재했다.

이번 방화 피해를 입은 사원은 상좌부 불교 비구니 사원으로, 10여 년 전 Lee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빤냐와띠 스님은 "사원 복구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금 조달은 대만불교협의회 도움만으로 충분하다"며 "중요한 것은 비구니들의 생존 문제다. 많은 비구니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원을 떠나 은신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센터를 설립한 리 박사 또한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 경찰들 마저 '여성들의 승계 수지는 불법'이라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태국에서는 여성의 출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불교 최대 종파 'Supreme Patriarch of Thailand'이 1928년 제정한 법에 따라 태국에선 비구니의 구족계 수지가 원천 금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빤냐와띠 스님은 "세계인들이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용히 싸워왔다"며 "태국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 권리 요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핀 존스 "역할 몰입 위해 불교·명상 배워"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서 주연 '대니얼 랜드' 역 맡아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 중인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Iron Fist)'에서 주인공 '대니얼 랜드(Daniel Rand)' 역을 맡게 된 핀 존스(Finn Jones · 29)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무술 뿐 아니라 불교와 동양철학에도 심취해 화제다.

핀 존스는 미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 인터뷰서 "연기 몰입을 위해 불교와 동양철학에 대해 정신·육체적으로 배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 존스는 "나는 주인공 대니 랜드가 무척 마음에 든다. 스토리와 캐릭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선택한 것"이라며 "대니얼 랜드가 수퍼 히어로인 '아이언 피스트'로 변하는 과정에서 진실된 마음과 영적인 요소를 통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영화 '아이언 피스트'에서 대니얼 랜드의 아버지인 웬델 랜드는 뉴욕의 성공한 사업가다. 그는 어느 날 '쿤룬(K'un-Lun)'이란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마을(쿤룬이 허락한 자들만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불사의 영역)이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단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친구인 헤롤드 미치엄과 아내 헤더, 9살 난 아들 대니얼 랜드를 데리고 쿤룬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러던 중 웬델 랜드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끝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한다. 평소 웬델 랜드의 아내 헤더를 흠모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헤롤드 미치엄은 이때다 싶어 아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웬델 랜드가 잡고 있던 로프를 끊어 버린다. 웬델 랜드는 죽게 되고 헤더와 대니얼 랜드는 헤롤드 미치엄을 피해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되지만, 엄마는 늑대 무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에서 주인공 '대니얼 랜드' 역을 맡은 핀 존스가 역할 몰입을 위해 무술, 불교, 동양철학에도 심취해 화제다.
사진출처=엔터테인먼트 위클리

핀 존스는 "대니얼 랜드의 아버지 웬델 랜드는 억만장자이면서 동시에 쿤룬에서 쿵푸와 불교 철학을 배운 인물로 묘사된다"며 "나는 이 2가지 이색적인 조합이 매우 재밌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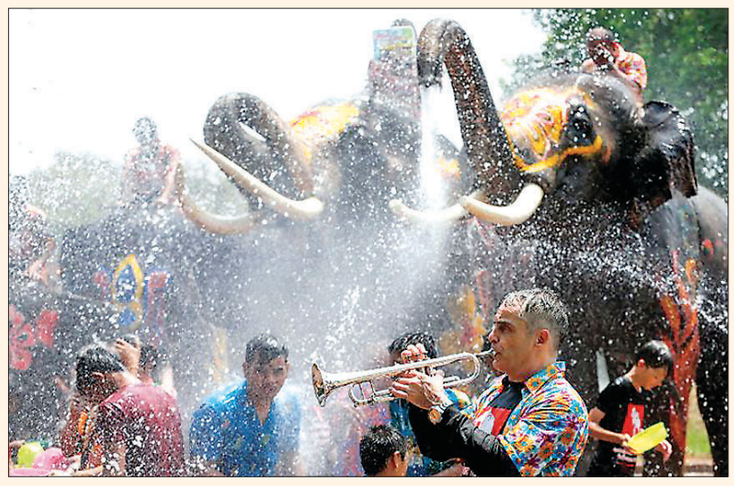
이에 핀 존스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쿵푸와 우슈, 태극권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오전에는 무술과 태극권 우슈 등을 배우고, 오후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에 임한다"며 "특히 저녁에는 불교 철학과 함께 명상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평소 슈퍼 히어로가 되는 꿈을 꾸면서도, 정신적·육체적 규율 속에 생활하고 싶었다. 이번 아이언 피스트 역할이 적격이었다"라며 "마치 오랫동안 내가 꿈꿔왔던 역할과 생활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는 2017년 방영될 예정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가뭄을 적신 '송끄란 축제'

태국이 엘리뇨 여파로 사상 최악의 가뭄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최대 물 축제 '송끄란(Songkran)'이 개막을 알리며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했다. 송끄란 축제는 매년 4월 13~15일 타이 주요도시서 열리는 문화 축제로 '물의 축제'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서로 물을 뿌리는 일명 '물싸움'을 즐기는데, 이는 태국에서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며 불상을 청소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출처=REUTERS/Jorge Silva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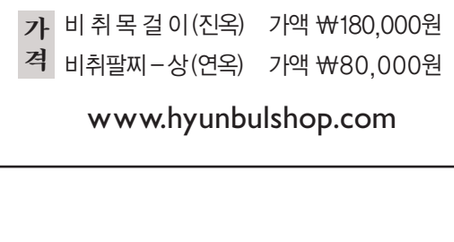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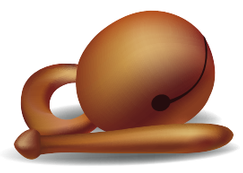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소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좋은 글귀를 잘 외워도 이익될 것 없고 훌륭할 것이 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 증일아함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 암 달 마 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손금 천기누설 강의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성명학(이름으로평생사주볼수있다)
- 사주 + 백초귀장술 + 타로
- 스님, 무속인, 일반인
- 특별 책임 개인지도
- 암,질병,재판,산소,교통사고 운을 한 눈에알수있다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강법, 치유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특히 모든 신경성 질환 치유법,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찰 등)
다음 카페 철학과 심신 건강법 몸과 마음 건강법
(심리철학, 건강철학, 부부철학)
• 본인경력 : 심리철학관, 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사찰 운영을 책임있게 맡길 후계승을 찾고 계신 큰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납 20년, 세수 60세, 보살과 함께하는 비구승입니다)
010-8671-338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 60세 이상, 부부가능, 교포도 가능)
010-3034-2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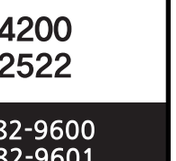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요사채 10평, 후원 8평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0-6505-8004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비
• 주차,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2천(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천상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으로 보시하지 말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어리석은 복전(수행자)에 보시하지 말고 수행을
잘 하여 공경할 만한 복전(수행자)에 보시하라.

- 증일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전통와가 사찰 ◀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00평, 주차장 13평 별도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3동)
- 가액 : 1억 4천(은행대출 4억 2천)

▶ 관 광 사 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관광버스주차장
- 건물 : 법당 48평, 요사채38평, 원주실 15평
- 가액 : 14억 5천

※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5,400여년전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 보유)

051-863-6622
010-3560-8522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순창 추천사찰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내장산 부근 사찰
- 법당 90㎡, 요사채 110㎡
- 공양간, 지장전 등, 토지 5,500㎡
- 면소재지 부근, 토지값 정도로 인수 가능함
- 양가액 : 4억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남
◎ 대지 : 60평 ◎ 대지 : 4000평
◎ 법당 : 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요사 : 120평
◎ 양도 : 7억 5천 ◎ 양도 : 40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옛 금강공원입구)
- 총부지 : 203평
- 1건물 : 법당(30평), 요사채(2동), 주차장
- 2건물 : 사찰에 딸린 원룸 1동 (룸12개), 점포(2개) 전세 2억 월 400만원 나옴
- 가액 : 은행대출안고 6억 5천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제천시 (급) 사찰

제천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법당 45㎡
- 요사채 59㎡
- 제천시장 부근 사찰
- 유동인구 많으며 포교사찰로 좋음
- 가액 : 1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5,0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 3길 41
- 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공양간1, 방2개
- 가액 : 2억 8천(전세가)

010-3508-771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앞 대로변
- 4층 건물중 4층, 화장실 및 옥상단독 사용
- 총 45평 중 법당 20평, 공양간, 주지실, 다용도실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집기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468-3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 1, 요사채 1, 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아차산역 5분)
- 2층 50평
- 방3, 법당1,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2333-3005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부산에서 이런 법당 찾기 힘듬

010-7138-114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 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큰방 1, 작은방 2 중 1방은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가액 : 2억 4천만원
- 산중 작은 암자나 토굴 교환가능

010-9411-5302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 4천

010-3305-4559
010-9004-72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평수 : 약 80평, 2층 건물의 2층, 법당, 방 3개
- 화장실, 옥상사용 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5298-7357
010-4916-9499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가액 : 2억 2천만원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소원성취 포교원

- 위치 : 서울시 중랑구에 3개산이 내려다보는 법당
- 5층 건물 5층 약 90평(옥상사용) 전철 5분
- 법당 30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영가단 20평
- 공양간 20평, 방 3개, 해우소 2개, 연등 3천개
- 바닥 전체 도시가스, 각단에 탱화를 비롯해서 모든시설 완벽하며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터로서 6년째 운영중인 복된 자리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려놓고자 합니다.
- 가액 :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 시설비는 인연따라 형편따라 드리겠습니다.

010-2127-475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011-9551-3374

전원 주택지 명당터 안내

하늘이 내린 천생산 자락에 명예와 부귀를 부르는터 ... "정남향"

- 위치 : 경북 구미시 신동 사각지 못 바로 앞
- 대지 : 1) 약 200평 2) 300평
- 기반시설 완료 : 오셔서 건축 바로 하시면 됨
- 가액 : 평당 170만원
- 현장 답사후 가격 절충

010-3503-416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IC 5분거리
- 평수: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 1동 33평
-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6천5백만원) 시설물 일체
- 양도, 전 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1억 월30만원)

010-7183-01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촌 IC 옆
- 총평수 : 1,25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3동, 70평
- 가액 : 2억

011-370-5904
033-263-5904

법당 포교원 임대

- 위치: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가
- 시설비포함 3500 / 월세 60, 실평수 23평
- 지하철, 홈플러스 걸어서5분. 초역세권. 입지조건 최고 갤러리아백화점 신축확정, 아파트 학교 회사밀집지역
- 법당 상담실 겸 스님방 주방 다용도실
- 법당시설 완비(불,탱,CCTV,전기조명,기타) 플리모델링
- 주차장편리. 단골신도 포교에 유리. 민원없음

총무 010-5967-3689
010-8532-8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강남구 삼성병원 앞 일원동
- 3층 전체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관세음은 동불임)
- 시설완비. 15년포교원 하던곳 공용주차장이주변에 3곳있음
- 가액 :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500만원(건물주 불자)
-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함

010-9167-7441

사 찰 안 내

- 복지관련 사업하실 분
- 자격요건 : 종교법인 또는 스님, 은행거래 잔고금
- 1억~2억선 이상 잔고증명 가능분
- 사업자금대출은 <PF>기업자금
-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의령군, 단양군, 즉시착수
- 가능지역 강원도 원주시 상담 가능

010-3288-131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찰,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자원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5평(3층 중 2층) 시설내부(최상)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억 2천만원(대출 4천포함) 시설비, 비품포함(일천오백) 월세가능. 보증금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일천오백)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중심가
- 평수 60평 정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시설완비, 즉시법회, 난방비 무
- 가액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부근
- 대지 100평
- 대흥전 25평, 요사채 48평
- 가액 : 1억 6,000만원 절충가

010-5405-0752
043-733-2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원로 54-10 속초, 고성 경계지역
- 대지 100평, 텃밭 200평(합 300평)
- 단일건물 약 60여평(농가주택 개조)
- 법당1, 방 4, 화장실 2, 에어컨 3대 CCTV 4대, 기름 보일러
- 주방, 전기렌지(가스 별도 설치)
- 가액 : 1억 8천, 전세1억

010-3364-0390(스님)
033-638-0390(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7570-205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채
- 옆산, 각종 정원수
- 각종 유실수, 넓은 공간
- 양도도 가능
- 가액: 1,000만원 1년 350만원 총 3,500평

010-8826-83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 대운산자락에 대단지 타워형 고급아파트
- 33평으로 베란다 확장하여 공간이 넓고 전망좋으며 주변환경이 쾌적하여 포교원력을 갖추신 비구니스님께서 토굴삼아 안거하시면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아담한법당 장엄되어져있고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854-8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 5, 방 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남중동(4차선 대로변)
- 평수: 약 30평, 상가주택 2층 중 2층(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후불, 신중, 산신 등)
- 법당, 주지실, 상담실, 넓은거실(리모델링)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목욕탕, 간판 등
- 가액 : 전세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교통편리

010-9288-68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아담하고 노후보장으로 좋은절
- 평수 : 대지 176평, 주차장 및 텃밭 660㎡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해우소4
- 좋은인연, 걸망만 매고 오세요
- 가액 : 1억 5천

1899-104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7570-205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채
- 옆산, 각종 정원수
- 각종 유실수, 넓은 공간
- 양도도 가능
- 가액: 1,000만원 1년 350만원 총 3,500평

010-8826-83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 대운산자락에 대단지 타워형 고급아파트
- 33평으로 베란다 확장하여 공간이 넓고 전망좋으며 주변환경이 쾌적하여 포교원력을 갖추신 비구니스님께서 토굴삼아 안거하시면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아담한법당 장엄되어져있고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854-810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아담하고 노후보장으로 좋은절
- 평수 : 대지 176평, 주차장 및 텃밭 660㎡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해우소4
- 좋은인연, 걸망만 매고 오세요
- 가액 : 1억 5천

1899-1042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 심야전기 2대
- 삼존불 영가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8900-487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대운산자락에 대단지 타워형 고급아파트
- 33평으로 베란다 확장하여 공간이 넓고 전망좋으며 주변환경이 쾌적하여 포교원력을 갖추신 비구니스님께서 토굴삼아 안거하시면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아담한법당 장엄되어져있고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854-810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산과 강구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터
- 암자 및 별장, 요양지로 적합
- 시골집 한채, 방2개, 부엌1
- 약 100평 땅 평생무료 토지세 없음
- 가액 : 2,500만원

010-9670-3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4646-3638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3〉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 ㊤

부정적 정서 지켜보라, 인내심 생긴다



너의 욕망과 생각을 알아

동기와 인지는 알기 어렵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인지는 모르더라도 자신의 동기와 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동기와 인지도 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동기와 인지도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와 행동 간의 관계를 잘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무의식적 동기가 실수 행위와 신경증의 원인이 됨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또 암묵적 지식(implicit knowledge)에 대한 최근 연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인지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과도한 동기와 비합리적인 인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기와 인지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이다. 한 때 의식적이었던 것들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자동화되어 무의식적이 된다. 또한 어떤 동기들은, 의식되었을 때 다른 중요한 동기(자존감, 양심 등의 동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의식되지는 않으면서 다른 형식으로 작용한다.

상당수의 동기와 인지가 무의식적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뒤집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좌절되었거나 혹은 좌절이 예상되는 동기가 있다. 또한 곰곰이 살펴보면 관련된 비합리적 인지전략도 발견할 수 있다.

친구가 약속에 늦게 나타났을 때 화가 난다면, 뒤집어 보라. 내 안에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 혹은 '사람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동기가 있음이 보일 것이다. 약속 지킴에 대한 동기가 없다면, 친구에게 약속 지킴의 소망/당위를 품지 않는다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 친구가 과거에 몇 번 약속에 늦은 적이 있을 때 그것을 과일반화하면 "너는 왜 맨날 늦냐!"라고 반응하면서 화가 더 커지게 된다. 이때 이 친구가 앞으로도 약속 때마다 늦을 것이라는 미래의 동기좌절예상까지 포함되어 더 화가 날 수 있다. 만약에 친구가 약속을 어겼어도 앞으로는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인지가 높은 확신도와 함께 인식되면 화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일단 자신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인지전략을 책으로만 배워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지전략을 알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책을 통해 수영법의 종류를 파악하고는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동기와 인지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스트레스 일지를 쓰면서 분석해본다. 우선은 어떤 동기의 좌절 혹은 좌절예상인지 생각해본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인지를 돌아본다. 기분이나 감정은 동기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관련된 인지, 인지전략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가만히 바라보면 보인다: 마음챙김

동기-인지 분석 연습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스트레스의 구성에 관여하는 동기와 인지를 일지로 쓰면서 분석한다. 동기-인지 마음챙김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외에도 평소에 틈틈이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사용하는 동기와 인지전략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밑바닥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또 생각에 어떤 인지전략이 작용하고 있는지 마음챙김한다. 마음챙김은 주의를 밖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려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동기, 인지, 정서, 감각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기-인지 마음챙김에서는 그 중에서 동기와 인지에 초점을 두고 마음챙김한다.

우리가 정보처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안다는 것인데, 마음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앎을 만들고 있는지 잘 알도록 한다. 먼저 자신의 앎에서 사실적 앎과 추론적 · 판단적 앎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덩어리로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앎, 일반적인 정보처리라면, 마음챙김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나눠서 보는 것이다. 동기와 인지를 나누고 현재 자신이 어떤 동기 상태이며 어떤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차리도록 한다.

마음챙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두고서, 파란 하늘에 나타난 구름처럼 자신의 마음에 어떤 동기와 인지가 나타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와 욕구에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고 '…하고/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 '…하고/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구나' 하고 자신의 동기를 대상화하고, '…라는 생각이 있구나' 라고 자신의 인지를 대상화한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 A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갈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자. 여기서 '내가 A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가 받지 않고 지나갔다'는 사실적 앎이고, 'A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는 사실적 앎에 대한 나의 판단적 앎인 줄 알도록 한다. 더 나아가 그 판단적 앎이 그 사람으로부터 확인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생각이므로 '독심술사고' 의 비합리적 인지전략에서 온 것임을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아울러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가 있는 줄 알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판단적 앎에 대해 'A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기에 대해) '무시 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구나' 라고 속으로 명명하는 것이 마음챙김을 도와준다.

> **스트레스 동기 대부분 '무의식적'**
> **뒤집어보면 간접 확인할 수 있어**
> **우선 자기 동기와 인지 확인해야**
> **'스트레스 일지' 기록 통해 분석**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고 있을 때 마음챙김을 하면 끝없이 돌아가던 생각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게 된다. 생각을 생각으로 보게 된다. 동시에 부정적 생각의 반추에 수반하던 부정적 감정의 늪으로부터도 빠져나오게 된다.

마음챙김을 한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모든 주의를 안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적절하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의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역시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어떤 일이든 반복해서 숙달하면 적은 주의만으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동기-인지 마음챙김에서는 자신의 동기와 인지, 특히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와 비합리적 인지전략을 탐지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와 비합리적 인지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 자신이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욕구를 갖고 있고 비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모르면 그것에 빠져서 지속하게 되지만, 마음챙김을 하면 동기 및 인지와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동기와 인지를 동기와 인지로 볼 수 있게 된다.

동기와 인지를 찾기 어렵다면 어떤 동기의 좌절 혹은 좌절예상인지 생각해본다. 다시 말해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인지를 돌아본다. 기분이나 감정은 동기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관련된 동기와 인지전략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관찰하듯 처음처럼 바라보기

마음챙김명상을 꾸준히 하면 자기에 대한 통찰을 얻고 생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아래는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연습한 사람들의 소감 중 일부다. 마음챙김명상의 다양한 적용 사례는 〈스무 살의 명상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친구들이 강의실에서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과자를 나눠 먹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가' 하며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때 마음챙김명상이 떠올랐다. 심호흡을 길게 두 번 정도 하고 '지금 내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구나', '안 끼워줘서 섭섭해 하고 있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였다. 일단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생각하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서 좋았다. 나를 감정에서 떨어뜨려 생각한 뒤 다시 심호흡을 한 번 가볍게 하고는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나도 같이 먹자~' 라고 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과자를 나눠 주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챙김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자세가 도움이 된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 한다. 각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느껴지는지, 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경하듯이 한다.

둘째, 사람을 만날 때 가급적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한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마치 간밤에 자고 새로 태어난 사람인 듯이 대한다. 대체로 정보처리는 '위-아래로의 처리' (top-down processing)의 경향이 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며,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선입견에 일치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면, 자신이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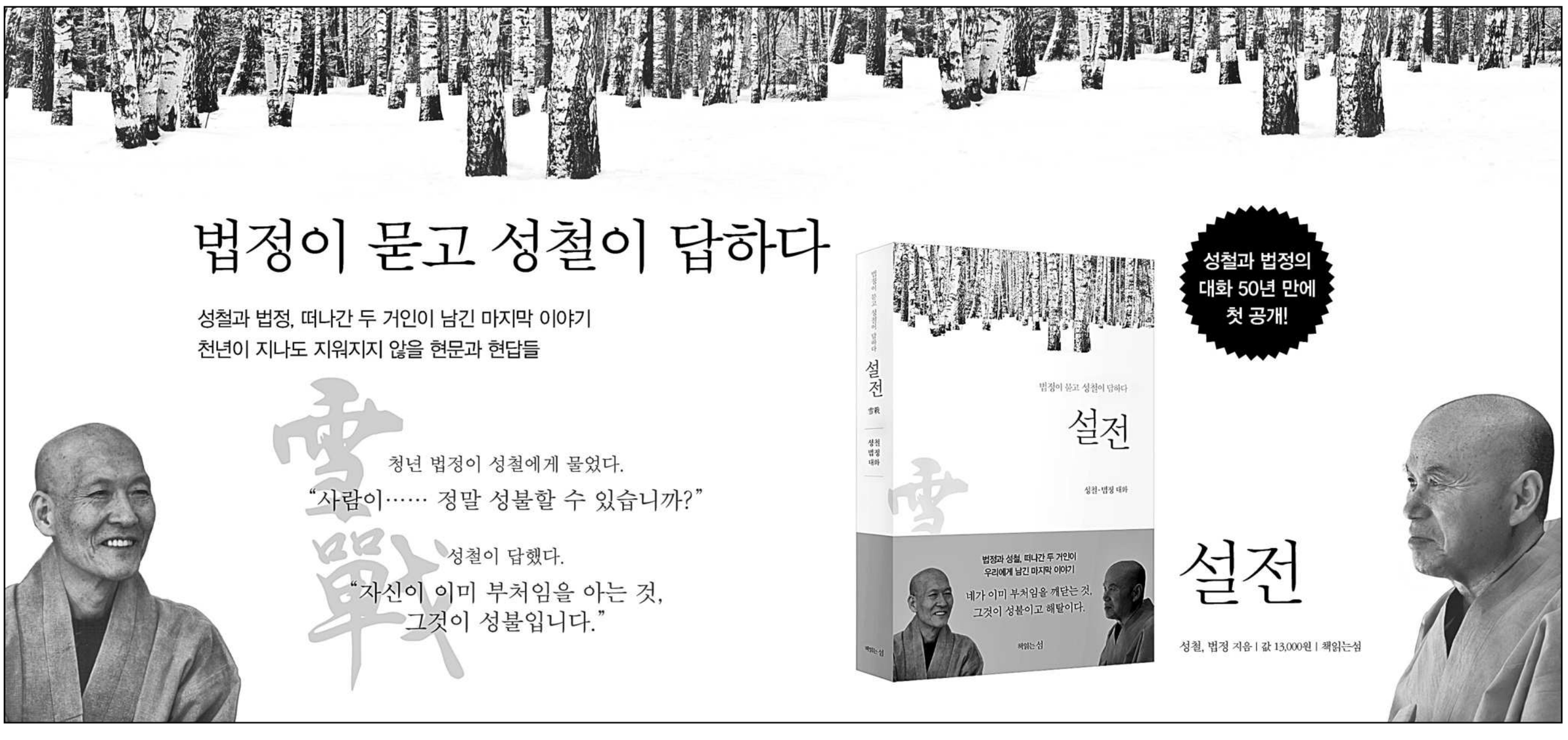
셋째, 스트레스의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가급적 회피하지 말고 떨어져서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한다. 부정정서가 더 잘 자각되고 그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러한 훈련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준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 즉 인내심(tolerance)을 기르는 것은 동기의 변화에 매우 중요하다. 동기-인지 분석으로 자신의 동기가 과도하거나 인지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반복해서 분석하며 새로운 대안적 동기나 인지로 대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마음챙김으로 지켜보는 연습은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회피 동기를 줄여준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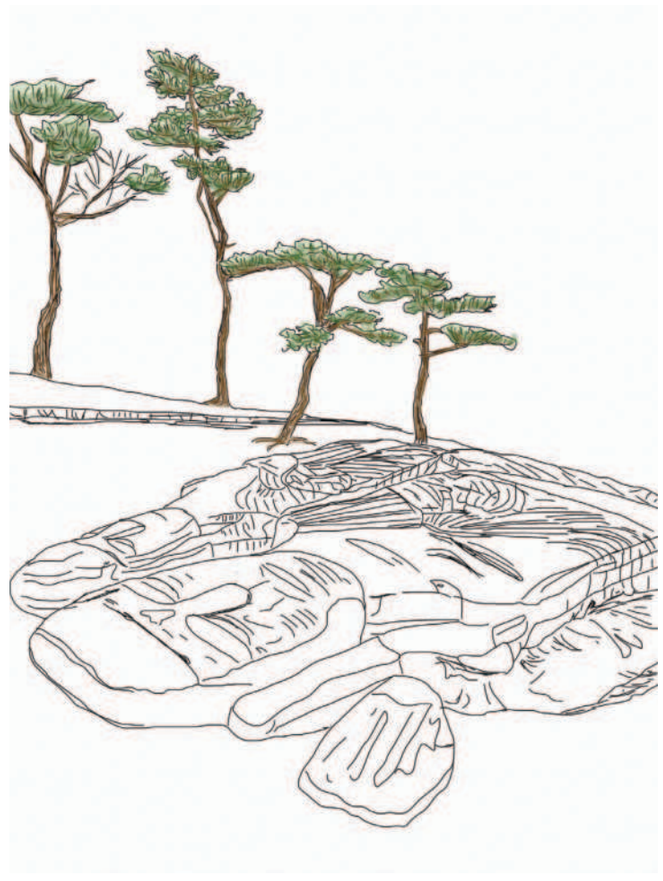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배종훈의
명상카툰

빈 공터 속 부처의 기운



서해안 고속도로는 하얀 꿈속처럼 짙은 안개로 길이 나 있었다.

가야할 거리도 멀고, 주말이면 늘 막히는 고속도로라는 악명을 기억했기에 새벽길을 골랐지만 정작 내 이마를 누르는 것은 눈앞을 막는 안개도, 도로를 메운 자동차도 아닌,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삶이 항상 이렇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생(生)에서 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은 물리적인 장애나 불행이 아닌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불안감이다.

일주문을 지나 여기저기 불규칙적인 듯 규칙적으로 서있는 석불과 석탑들을 마주하니, 또 다시 안개 속에 들어선 기분이다.

천개의 탑과 천개의 부처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이 골짜기에 이제는 석탑이나 석불이 없는 빈자리에도 여전히 불(佛)의 기운이 가득해서 빈 공터도 그냥 밟지 못하겠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대비주(大悲呪) ㊤

"너의 큰 슬픔, 내가 안아줄게"

"엄마 나 교정기 빼면 안 될까?"

"응, 안 돼."

엄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봐라. 눈 딱 감고 2년 보내고 나서 얼마나 예뻐졌니? 교정기 처음 끼고 그렇게 아픈 것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빼면 아깝잖아."

"난 그냥 안 예쁜 것보다 불편한 게 더 싫어."

"엄마처럼 평생 주걱턱으로 살래?"

엄마는 튀어나온 아래턱을 과장해서 앞으로 쭉 뺀 후에 위아래로 딱딱딱 이를 부딪쳤다. 엄마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지만, 예린이는 말이라도 꺼내보고 싶었다. 교정기를 빼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예린이에게는 10년도 더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면대 앞에서 이를 살펴봤다. 역시나 고춧가루가 붙어 있었다. 위에 두 개, 아래에 한 개. 밥을 먹고 물로 여러 번 입을 헹궜는데도 교정기 사이에 낀 고춧가루는 빠지지 않았다. 예린이는 오랫동안 이를 닦았다. 고춧가루가 모두 빠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참을 더 닦았다.

그 일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사진 속에서 예린이는 웃고 있었고, 활짝 벌린 입술 사이로 교정기에 낀 고춧가루가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불타는 철사.'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예린이도 그 사진을 보고 웃었을까.

ㅋㄷㅋㄷ, ㅎㅎㅎ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 댓글은 점점 정도가 심해졌다. 더러워. 구역질 나. 예린이 배 많이 고프겠다, 음식 덜 먹어서. 저거 떼어서 다시 입속에 처넣어 주고 싶다…….

예린이가 좀 더 활달한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이들을 모두 웃길 만한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더라면. 당장 사진 지우라고 화를 냈더라면. 예린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아이가 아영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뿐.

그 후로 손거울을 들고 다니며 자주 치아를 살폈다. 채팅방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화재 현장을 살피고 있는 소방관 예린이.'

체육 시간에 달리다가 신발이 벗겨져도, 수업 시간에 필통을 떨어뜨려도, 누군가의 농담에 웃어도, 예린이의 행동,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채팅방에서 중계되었다.

아이들은 예린이가 그 방에 없다는 듯이 예린이에 대해 지껄였다. 채팅방에서 나오면 1초도 되지 않아 초대되었다. 예린이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음이 울리면 옷장이나 베개 밑으로 휴대폰을 던져 놓았다.

"지나간다.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예린이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다. 아빠는 힘든 상황이 되면 이 말을 떠올린다고 했다. 힘겨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이 순간은 언제쯤 지나가게 될까?

예린이는 아영이 엄마가 선물한 팔찌를 만졌다. 나무 구슬 위에 한문이 빼곡하게 새겨진 팔찌였다. 아영이의 엄마는 병실에서 나무 구슬 위에 이 글씨를 한 자 한 자 새기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아영이를 따라 병실에 갔을 때, 아영이 엄마는 이 팔찌를 손목에 끼워주었다.



그림 · 강병호

"가엾은 우리 아영이 손, 언제까지나 꼭 잡아주렴."

아빠는 이 팔찌가 대비주(大悲呪) 염주라고 했다. 대비는 큰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팔찌에 새겨진 글씨를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구슬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으면 슬픔이 촉촉하게 가슴 속에 배어드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축축해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드는 것이 예린이에게는 마지막 일과가 되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교실로 들어서다가 뛰어오는 아영이와 부딪쳤다.

"미안해."

"똑바로 보고 다녀. 주둥이가 삐꾸 되더니 이젠 눈까지 삐었니?"

아영이는 예린이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이들은 아영이의 말에 키득거리지 않았고, 뛰어나가는 아영이의 등을 싸늘하게 바라봤다.

"정말 구질구질해."

주연이가 말했다. 주연이, 은채, 민서. 아영이를 친구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이제 아영이 뒤에서 아영이를 향해 눈을 흘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린이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영이가 아이들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었다는 걸.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영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휴대폰을 들고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어딘가에 있을 아영이의 휴대폰에 쉼 없이 알람이 울리겠지. 딩동, 하는 짧고 경쾌한 소리가 그 애의 가슴을 할퀴고 있을 것이다.

텅 빈 교실에는 아영이의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예린이는 아영이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교실을 나섰다.

아영이가 전학 왔을 때, 예린이는 무척 기뻤다. 3학년 때 전학 가기 전까지 아영이는 예린이의 단짝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유치원도 함께 다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영이는 이혼으로 헤어져있던 아빠에게 갔다. 몇 번인가 편지를 보냈지만, 아영이에게선 답장이 없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차츰 아영이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아영이가 돌아왔다.

돌아온 아영이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예린이가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는데도 아영이는 " 지냈지?"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끝이었다.

아영이의 집은 같은 단지였지만 길 건너편에 있었다. 그곳은 임대아파트였고, 주민들은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과 같은 이름의 단지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아영이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애가 울고 있으리란 걸. 예린이는 흔들리는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넌 아주 즐겁겠구나. 이런 꼴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니?"

못된 말을 하고 심술을 부려도 예린이는 아영이가 밉지 않았다. 아영이를 보면 왠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어스름이 서서히 놀이터의 공기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방을 놓고 돌아서는데 아영이가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잠깐만 같이 있어 줘." 〈계속〉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93호 현대불교
2016년 4월 20일 (3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부활이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헐뜯으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세대니만큼 그렇게 바쁘게…. 나는 눈물이 찡하게 나곤 하죠. 저기 있는 보살이 선원의 지금 사무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를 타고요, 머리 빗고요, 빵 한 개 들고요, 그거 마시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이 카세트를 거기 끼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도 일을 하고 입도 일을 하고요. 하하하. 아주 전체 몸뚱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뿐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참선이 딴 데 있는 게 아닌데 이러는구나. 그러면 저런 분은 기독교 믿어도 한 번도 천당에 못 갈 거고 또는 불교 믿어도 승천 못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백팔배를 못 하고 그래서 리어카 끌어 먹는 사람은 그럼 승천 못할 거 아닙니까. 바빠서 절을 못 하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도리와 더불어 아까 얘기해 드린 거와 모든 것을, 지금 인공위성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 시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해 놓으신 그 뜻이 바로 오늘도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절도 초 초마다 부활절이요, 4월 8일도 일 초 일 초 바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부활이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일 년에 한 번씩 와서 인등을 켠다고 하는데, 인등은 내 마음을 일으키고 불심을 일으키는 데서 그게 밝은 인등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지마는 마음이 일으켜졌으니까 움죽거려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켜는 겁니다. 그러니 절마다 인등을 켜 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예전에 기름으로 켜던 그런 식으로 된 데다가 요렇게 전깃불 하나 해 놓고, 거기다가 인등 켠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난 그런 것도 여러분 자신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내 한생각이 우리 식구를 다 살릴 수가 있고, 내 한생각이 잘못돼서 구덩이에 빠지게끔도 할 수 있고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자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고 재료도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맹종하고….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모르니까 나를 익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시켰고, 또 자기가 자기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서 아주 갖가지 맛을 내라고 그런 거고, 그 씨가 익으면 내년에 또 심으니까 영원한 자기를 맛보라고 그렇게 절을 시킨 겁니다. 절을 꼭 108배 할 것을, 마음을 둥글려서 일배를 잘 하신다면 108배 한 거보다도 그 일배가 더 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편은 바빠서 지금 그냥 공당공당 뛰고 나가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서서 자기 할 일만 뭐, 주문을 외운다거나 이런다면 굶주리게 되고 또는 고독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가정이 다 그런 거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도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도리를 아실 거 같으면 어떠한 별성도 바로 나인 것이고, 내가 별성이 될 수도 있고 핼리 혜성도 될 수 있고 또 그 핼리 혜성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또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하고 체험해서 그 도리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내가 또 죽어서 서로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 네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산다. 자유인이 된다. 찰나찰나 생활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변소에 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불당에만, 법당에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교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 님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나를 발견한다면, 바로 내 주처를 먼저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는 바로 실험과 체험이 들어갑니다. 둘이 아닌 도리. 둘이 아닌 도리를 진짜로 알아야만이 스승도 팔아먹지 않을 거고 뼈다귀도 우려먹지 않을 거고 이름을 팔아먹지도 않을 거고, 또는 거기서부터 둘이 아닌 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함으로써 자식들도 뿌리가 싱싱해지고 병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이파리는 아마도 싱싱할 겁니다.

그러니 불법이 어디 따로 국한돼 있는 걸로 알지 마시고, 또는 기독교가 따로 있는 걸로 알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는 남녀를 막론해 놓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일배를 진실히 진심으로 할 때 바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으로 돌아가서, 일체로 돌아가서 일배가 만배를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가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까 "넌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집을 지어 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물 한 컵을 떠 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이 공부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 공부를 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오실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모들한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으로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중이 돼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사는 회사 회장도 있고 또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는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태어나서 다시금 그 통장을 쥐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그, 지금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을 착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했으면 일한 대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 일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악도 거기 놓고 선도 놓고 잘한 것도 놓고 못한 것도 놓고 다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성신, 자기 주처에서는, 바로 자기 님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내 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 하나도 부처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라고 했다면 벌써 부처가 아닙니다. '큰스님이다' 이런 말도 이름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통달해서 남을 이익 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실천으로써 그것이 법이 돼야만이 그게 이득이 가고 여러분이 오면 말없이 왔다가도 충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에게 내 님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 25면에서 계속

연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과거는 어저께도 과거고 아까도 과겁니다. 그런데 내다보고 살려면 사는 대로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점점 살아나가면서 내 뿌리를 상실하고,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뿌리는 뭐 상실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항상 밝은 거고, 항상 심봉과 같은 거니까요. 맷돌을 돌릴 때에 아래 위를 꿰는 심봉과 같은 것이 바로 불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뭐 더하고 덜함도 없지마는 우리가 그 심봉이 딱 끼워져야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고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야 물건을 넣고 갈아내서 우리가 맘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죠.

두서없이 이렇게 얘길 하는 것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을 잠수함에 해도, 더 적게 하고도 크게 성과를 이루려고 연구들을 하는 판국에, 우리는 우리대로 기가 약해지고, 의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재가 아주 약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감기약이 있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고 나아야 할 텐데 감기약이, 이 약재가 벌써 사람으로 치면 기가 약해지고 그 성분이 약해졌어요, 똑같은 약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자유자재하게 내가 어디가 아프면, 즉 말하자면 콩팥이 잘못됐다, 걸러 주질 못한다 이런 때 그 콩팥에 대한 문제를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 식품이나 동물 생물 무정물, 전부 약 아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 수 없다면 앞으론 살기가 더 어렵고 쓰러지는 사람이, 병자가 더 많을 테죠.

요새 정신 환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런 도리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약으로 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의 그 의식과 이 마음, 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계가 들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두 가집니까? 머리에서 나는 정신병도 있고 타의에서 세균으로 그런 법도 있고 유전으로 그러한 법도 있고 영계로 해서 그런 법도 있고 인과로 인해서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약으로 해서 낫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주처에서 그 주처로 아주 집어 주는 거죠. 모든 거를, 즉 말하자면 유전이다 또는 영계다 인과다 하는 것도 이 물 한 방울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이것이 한 그릇의 물이지 두 그릇의 물입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벌써 둘이든 셋이든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면 '네가 끌고 가지 않는다면 어떡하느냐. 네가 끌고 가야지!' 할 때 바로 이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도둑질을 너무 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됐다고요. 어느 분이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그 도둑질해 내는 사람은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략 짐작은 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진급을 시키고 보수를 더 주고, 너희들 둘밖에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두 사람한테 맡기고부터 회사가 도둑을 안 맞더랍니다. 도둑도 안 맞고 또 회사가 잘되는 거예요. 좀 도둑이나 대도둑이나 이게 있으면요, 너도 해먹고 너도 해먹고 그러면 회사 망하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죠.

> **우리 생활 속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 **변소에 가도 자기가 변소에 갔기 때문에**
>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속에도 말입니다,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이 악업 선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별생각 다 나와도 거기다 다 맡겨 놓으시고 '너 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너밖에는 나를 살릴 수 없다. 너밖에는 내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없다.' 하고선 그냥 맡겨 버린다면…. 이거 보세요. 예전에 종을 부려도 이름을 부르고 "야, 이건 너밖에 심부름할 수가 없다. 얘, 너밖에는 이걸 해 가져올 수 없으니 이것 좀 해 가져오너라." 하고 참 좋게 추켜 주면서 하면 몇십 리라도,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 가져옵니다, 군말 없이. 그러나 아주 종이니까 너는 으레 그런 걸 하려니 하고선 그냥 "야! 너 이거 좀 해 가져와." 이러고 할 때는 빗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빗나갈 수도 있거니와 가다가 뺄 수도 있죠. 또 '얘, 이거 해 가져와.' 이러지도 않았다면 "얘, 아무개야!" 하고 이름만 부르면, "주인공!" 이러고 이름만 부르고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를 하라는 줄 압니까? "예." 그러고선 왔는데 뭘 하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도로 돌아갔다가 또 "주인공!" 그러면 또 와요. 또 왔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죠. 이렇듯이 주인공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믿음!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의사인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됐는데 거기 갈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자들을 봐야 할 테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다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전화기를 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나서 무조건이지, 무조건 심부름꾼이 돼야지 무조건 심부름꾼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다. 그게 무슨 섭섭하고 섭섭하지 않고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잠깐 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슨 나를 위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누구든지 따르더라도 세 가지를 보시고 따르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말과 행과 마음 씀씀이, 이거. 그것도 믿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요. 믿는 건 여러분의 주인공을 믿으세요. 누굴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또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사람도 없고요. 대신 똥 눠 줄 사람, 먹어 줄 사람, 자 줄 사람 이런 것도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다시 구름이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는 거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미생물로부터 거치면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태어났다고 보는데 그게 진화되는 과정이죠. 다 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인간이 제일 나중에 됐다 하는 거는 진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왔는데 그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간대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필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또는 냄새만 맡고 사는 세계로 좌천을 하느냐. 그런 삼차원 세계의 체로 거르는 세상, 이 삼차원 세계 중세계에서 다시금 또 돌아서 이거 뭘로 태어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 모르면 바로 그렇게 팔자 운명이 있는 것이고, 자기한 것대로 자기한테 올 것이고,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거를, 그 입력이 된 거를 없애 버려라. 지금 자꾸 입력을 해 넣으면 그 앞서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자꾸, 이렇게 금방 될 것도 안돼, 막으니까. 그게 인과거든.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허어, 그런 거 뭐 한두 건입니까.

그래 가지고 날더러 와서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스님, 아휴! 지금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집이 팔려야 됩니다. 은행으로 그냥 당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럽니다, 또. 그럼 내가 복덕방이 돼야 되거든요. 하하하. 그래서 나는 그러죠. "당신 속에 복덕방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서기도 있고 또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용신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러니 당신 속에다가 당신이 시켜, 당신이. 당신이 해!" 이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정히 당신이 모자랄 때 나도 거기 있잖아? 둘이 아니야, 이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덕방만 되는 게 아니라 삼신인저, 저 뭡니까? 애도 받아야 하고 뭐, 남의 손(孫) 받는 데도요, 그것도 있죠.

어느 사람이 이러더군요. 어느 신도의 올케가요, 아주 가난했고 남편은 병들었고 참, 이 속에 옷을 못 입어서 배가 다 나올 지경으로 극히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울고 그 사람도 울었지만 어린애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거꾸로 앉았다고 배를 째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속에 옷도 없어서 못 입은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아휴, 그 의사 오진했단 말이야. 오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진한 거야. 거꾸로 있을 리가 없어." 그랬죠, 어떡합니까. 그 의사가 오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안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생각을 깊이…, 그 배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애는 걔대로 울고 돌아서고 "이삼 일, 삼 일만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너라." 그래 놓곤 이제 나는 나대로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아이, 제대로 돌아서서 어린애를 낳을 수 있게 됐더군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시 가 봐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러더랍니다. "야, 나는 오진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아, 거반 바로 다 섰네요. 아휴 참,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만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럼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린애를 돌봐 달라고 그래라." 그러고선 보냈어요. 보내고 돈을 준비해서 암암리에 전달할 수 있도록 딴 사람을 시켰죠.

그런데 이런 적도 있어요. 어린애를 배기만 하면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태가 돼서 쫓겨나게 됐어요. 부잣집인데 그냥 쫓아냈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인제. 그래 친정으로 가서 이 선원에 왔어요. 어린애만 생기면 한두 달만 되면 벌써 낙태가 되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고 아마 혼인을 시키려고, 여기 득보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색시도 아주 참해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와서 울더군요. 그 우는 거를 보니까, 난 참 약하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 갔어요. '에이 참, 어린애 낳고 사는 게 뭔지. 남이 낳은 애 좀 기르면 어떤가. 아이, 꼭 그냥 낳아야만 하나.' 이러고선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면 어린애 낳으면 나 뭐 해 줄 거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기려고요. 그러니까 쭈물쭈물하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뭐 잡숫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다 드리죠." 그래요. 그래서 "야, 잡숫고 싶은 거 사다 드리기 이전에 너나 맛있는 거 사다 먹어. 어서 가거라." 그랬는데, 그달부터 어린애가 있어서 그 어린애를 지우지 않고 낳았어요. 남편이 정은 있으니까 아마 친정으로 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린앨 배서 낳았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하하. 그래 가지고 그 시집에서요 내쫓았던 며느리 찾으러 오느라고 사돈한테 두 손 싹싹 빌고 그냥 데려갔다고요. 저, 상쾌하데요, 그럴 때는요.

그런데요, 사람사람이 모두가 이 도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전화가 없으면 아주 갑갑하듯이 필수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깊이 잘 들으시고 요담에 만났을 때 실험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요담에 만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만나게 되겠죠, 인연이 있으면요.

※위 법문은 1990년 4월 28일 남가주 불교청년연합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모두가 귀한 존재… '갑질'은 그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곪았던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갑질' 사례가 자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의 항공사 직원 폭행,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폭행 및 항공기 회항, 국회의원 김현의 대리기사 인격모독, 호텔 직원을 폭행한 호두과자 회사 사장,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최재호 무학소주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폭행,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대기 근무를 강요한 두산 모트롤,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의 140가지 '갑질' 심부름 매뉴얼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더욱이 전직 국회의장이 절대약자인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여 법정에 섰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기분은 솔직히 말해 '그저 그렇다'.

그런데 '갑질'은 재벌 2,3세와 같은 특수계층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다. 식당 종업원이나 백화점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버스기사를 사정없이 폭행하는 승객 '갑질'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갑질'은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감도 좋지 않은 '갑질'이란 단어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사가 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계약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갑(甲)'이 상대방인 '을(乙)'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일을 빗대어 하는 말인 '갑질'이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천박함과 불평등의 구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나를 몰라봐'로 비유되는 우월콤플렉스는 '이상적인 나(자기)'를 성취하지 못한 좌절감을 불필요한 자기과시로 보상받으려는 병든 심리 상태다.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감히 네가 나에게'를 외치며 격한 분노를 터트린다. 재벌 2,3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어쭙지 않은 '갑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우월콤플렉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우월콤플렉스는 '이상적인 나'에 미치지 못한 '지금의 부족한 나'에 대한 열등콤플렉스의 반영일지도 모르겠다.

알프레드 아들러도 우월콤플렉스와 열등콤플렉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열등콤플렉스를 현재의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채찍질하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고, 나도 모르게 찾아온 우월콤플렉스를 열등콤플렉스의 또 다른 한 측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바로 그때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건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쩌면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은 한쪽의 열등콤플렉스와 다른 한쪽의 우월콤플렉스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굳이 〈대반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實有佛性)'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본래의 타고난 인격적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상식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물며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특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과 미성숙한 사회화과정에 대한 치료와 재교육의 대상이지 부러워해야 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이 귀한 줄 모르거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도덕성의 회복만이 한국사회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說

불자 의원들 '민심이 부처' 임을 알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열렸다. 이번 선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민심이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자 국회의원 55명이 당선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새누리당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5명 등 총 30명의 불자의원이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5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주호영, 강길부 등 3명을 비롯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이철규(동해삼척) 등 5명도 당선보를 알렸다. 이는 18대 총선 46명과 19대 총선 4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개신교측서 기독교적인 소신을 가진 후보들을 뽑겠다고 밝히는 등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얻어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일반적으로 불자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원 이후 불교 신행모임 정각회를 구성하며 불교계와 소통하게 된다. 불교의 현안을 돕고 발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진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등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다.

불자임을 자부하는 국회의원일수록 민심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처음과 끝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춘 소통' 젊어진 연등회가 기대된다

전통의 연등회가 '청춘'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등회와 봉축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청춘마당이다. 5월 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에 신설되는 청춘마당은 팍팍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청춘마당에는 '어라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 등 불교 애니메이터그룹이 참여해 감성적인 불교카툰으로 청년들에게 불교를 부드럽게 전할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음수행법과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의 부스도 마련된다고 한다.

"불교의 참뜻을 알리고, 어렵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주최 측의 설명에 공감이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사를 살펴보면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3040세대 불교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하는 등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없다면 그 집단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부처님오신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연등회 자리에 젊은 층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눈여겨 볼 만 한 일이다. 젊어진 연등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발언대

한만수 前 교수 해임 논란

동료교수 폭행과 학교 비방을 이유로 해임된 한만수 前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상해 혐의 무죄와 징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한희원 교수는 한 前 회장이 해임 사유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문과대학 교수들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두 성명서를 발췌 · 정리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 〈편집자주〉

"해임 사유 의도적으로 왜곡"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만수 前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은 해임사유를 잘못 알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동인이 재판받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징계심사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다. 신성한 교내에서 형사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 또한 국법질서와 학교 공동체에서의 징계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한만수 전 교수는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한, 어느 어린 제자의 생명과 신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교 110주년을 눈앞에 둔 대학당국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학교에서는 해임된 교수가 대학 시설물을 이용하여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편타당한 정의를 추구해야하는 교수협의회도 진정으로 동료를 위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은 얼마든지 현재의 언행을 재정리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만수 前 교수도 투쟁의 시작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정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수협의회 회장 신분에서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또한 정의론적으로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질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음을 이해하고,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경감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해임처분이 감경되면 대학본부도 재발방지 약속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동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것으로 믿는다.

"진정한 일심동행을 바라며"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34인

대학 당국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 처분 사유로 알려진 것은 ①동료교수 상해행위 ②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③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이다. 그런데 이 세 사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①은 비록 형법에 저촉되었다고 하나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불과한데다가 그 '상해 행위'의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해임 같은 중대한 처분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입장에 따라 ②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요청일 수 있고, ③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대학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 따라서 ②, ③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대학 당국의 독선적이고 압제적인 태도의 발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 당국에서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 대표들을 종단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학생이 있기에 존재하고 학생 지도가 본업인 대학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기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학 사회의 단합을 요구하며 '일심동행'을 말해왔다. 대학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지금, 일심동행이 대학의 생존에 필요한 철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법적 권위를 빌려 이의와 반대를 제압함으로써 진정한 단합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든 배제 대신에 포용, 처벌 대신에 설득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순리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16 나한도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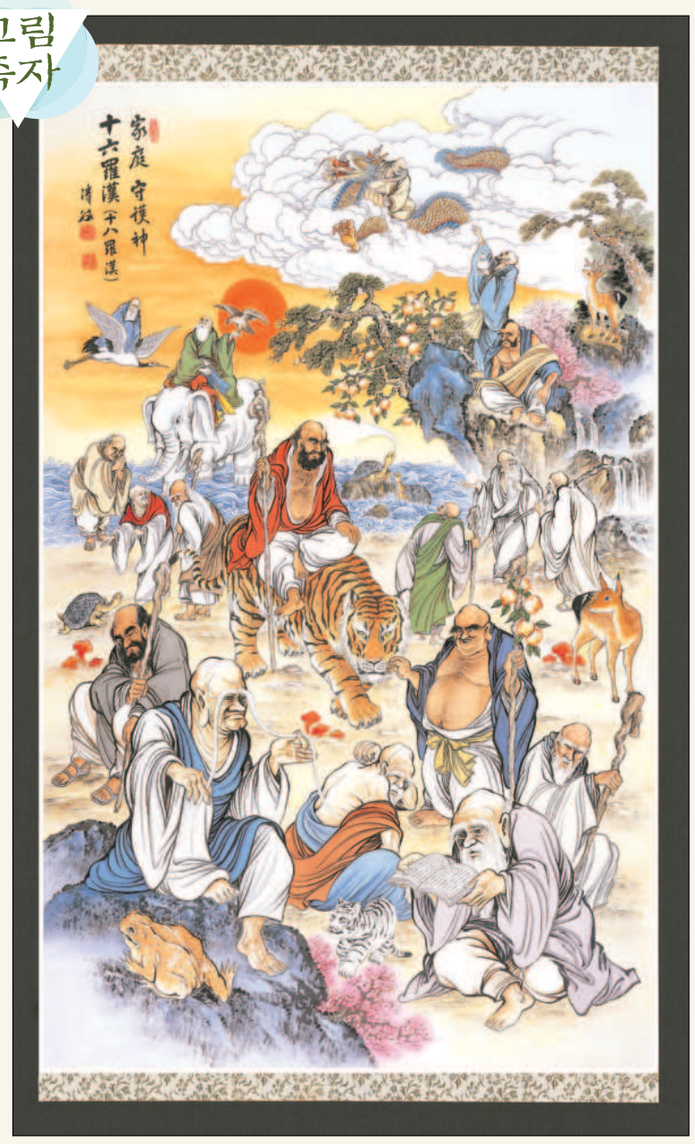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그림 족자



16나한도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6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 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 나한도 족자 가격 : 100,000원
●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뮤직에세이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skylife 171번 KT olleh 233번 SK Btv 555번 LG U+TV 185번 ▮케이블채널안내 | 02.3270.3300 ▮방송포교후원ARS | 060.800.7000